



The Fac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앨 레이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앨 레이시 / 정동수

Copyright ©

2026년 3월 1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12,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The Face of Jesus”

— Al Lacy —



Contents

저자 서문	5
추천의 글	6
역자 서문	8
1. 역동적인 얼굴(The Dynamic Face)	12
2. 무서운 얼굴(The Dreadful Face)	45
3. 실망한 얼굴(The Disappointed Face)	69
4. 눈부신 얼굴(The Dazzling Face)	89
5. 신성의 얼굴(The Deified Face)	111
6. 담대한 얼굴(The Dauntless Face)	120
7. 의무에 충실한 얼굴(The Dutiful Face)	142
8. 멸시당한 얼굴(The Despised Face)	165
9. 상처 난 얼굴(The Disfigured Face)	179
10. 고독한 얼굴(The Desolate Face)	193
11. 하나님의 얼굴(The Divine Face)	208
12. 변장한 얼굴(The Disguised Face)	218
13. 파멸시키는 얼굴(The Destructive Face)	231
14. 환희의 얼굴(The Delightful Face)	248



저자 서문

성경은 아주 광대하고 놀라운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의 풍성함과 깊이
에 놀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이아, 또한 이 말씀들에 의거하여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 12:12)

그러나 성경의 여러 주제를 다룬 책을 쓰는 일에는 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책인 성경의 무한한 깊이
에 빠져들수록 그 안에서 더 많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보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그로 인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발견한 매우 달고도 오묘한 주제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주제는 독자 여
러분께서도 이미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열네 장을 처음
부터 끝까지 읽는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분께
더욱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위해 기
도합니다.

또한 저는 주님을 모르는 분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얼굴을 바라볼 때, 이러
한 분도 제가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앨 레이시(Al Lacy)



추천의 글

부족한 사람이 레이지 박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서문을 쓰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에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침례교 성경 대학’에 다닐 때 레이지 형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며 그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레이지 박사와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훗날 저의 소중한 친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선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레이지 형제에게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그분의 확고부동함입니다. 그분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 그리고 고된 시련의 시간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도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리,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해 신의를 지켜 온 믿음직한 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람들 사이에 잘못 형성된 애정이나 깨어진 약속들이 난무하는 때에 레이지 박사와 같이 신실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며, 이러한 이유로 저는 레이지 형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레이지 박사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냈던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우리 곁을 지나가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그분은 분명 많은 시간을 들이셨을 것입니다. 레이지 형제가 쓴 책의 대부분은 사실 주제별 성경 연구서입니다. 저는 이 책 외에 그분이 지은 다른 책도 모두 명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부터 연륜 있는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크리스천이라도 이분의 책에서 풍성한 성경 연구와 영을 살지게 하는 좋은 양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여행하는 동안에 혹은 설교 모임을 갖는 동안에 이러한 책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고 자료가 가득한 서고를 통째로 옮겨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분의 책들은 단순히 주석서나 신학 참고 서적의 도

움을 받아 저술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저술되었고 그렇기에 성경 말씀이 제공하는 영적 신선함을 풍성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원고를 미리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제게 큰 복이었습니다. 어떤 장에서 독자들은 죄를 미워하며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거룩한 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독자가 저와 비슷하다면, 예수님께서서 밧모 섬에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신 장면을 기록한 부분을 읽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말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담긴 엄청난 사랑이 흘러나오는 고난의 메시지(7장)는 제가 수년 동안 전해 온 메시지와 맥을 같이하지만, 그 내용은 더욱 깊고 더욱 완벽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구원자 예수님을 가슴 에이는 아픔으로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9장)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크리스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이 책을 지은 레이지 박사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론 토팅햄 박사

Dr. Ron Tottingham

Empire Baptist Temple

Sioux Falls, South Dakota



역자 서문

약 10년 전에 처음으로 레이지 박사님의 책 「천사들의 미스터리」를 접하고는 그분의 해박한 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뒤 박사님이 저술한 열두 권의 책을 다 읽으면서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이분의 글을 모두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이런 뜻을 전하자 박사님은 흔쾌히 언제라도 자신의 책을 번역해도 좋다는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여정 속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레이지 박사님의 글을 다 번역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이지 박사님은 일 년 내내 미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며, 크리스천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어느 크리스천 서점에 가도 그분의 책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일흔 살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은 매우 활기가 넘쳤고, 지금도 그분은 매주 복음 집회를 인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읽고 나서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던 1998년은 어려우면서도 또한 복된 해였습니다. 그해에는 제가 안식년을 보내게 되어 강의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게 되었는데, 당시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달 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 연구와 성경 관련 글쓰기에 매진했습니다. 이때 가족을 그리워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의 사진을 책상 앞에 두고 늘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듯, 예수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레이지 박사님은 모두 열네 종류의 예수님의 얼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목차의 영어 제목을 보십시오. 모두 'D'로 시작하고 있지요?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소설가다운 기질을 발휘하여 레이지 박사님은 우리가 전

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귀한 예수님의 얼굴이 독자 여러분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지리라 확신합니다.

이 아름다운 책의 출간을 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수고하던 유상수 형제님이 초역을 해 주었습니다.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해양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휴스턴에 사는 그 형제님과 자매님, 그리고 예쁜 두 딸의 얼굴을 그려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얼굴로 그 노고를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책을 꼼꼼히 교정해 주신 사랑침례교회의 김지훈 형제님과 여러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¹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인천에서 정동수

1. 처음 번역 후 약 28년의 시간이 흘러 이 책을 다시 펴내는 2026년 현재, 세 딸은 모두 결혼해서 저는 3명의 사위와 7명의 손자손녀를 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화 <나사렛 예수>의 한 장면

The Face of Jesus



▶ 일러두기

본 도서에 사용된 예수님의 이미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모습이 아니며, 본문에 사용한 귀스타브 도레(1832-1883)의 삽화(판화)들도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징적 이미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The Dynamic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1장

역동적인 얼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성경은 방대한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책 속에 여러 가지 스케치와 그림을 보존하셔서 흥미로운 인물들에 대한 생생하고도 훌륭한 상상의 초상화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대한 미술관의 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찬 벽에 걸린 고대의 그림들을 감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이제 저와 함께 상상의 여행을 떠납시다. 자, 이제 이 그림 중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저기를 올려다보십시오! 아니, 아담의 그림이군요! 짐승들이 두 마리씩 짝지어 그의 옆을 지나가고 있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담은 그들에게 짝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림 속 아담의 얼굴을 세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얼굴에 숨어 있는

외로움이 보입니까? 불쌍한 아담! 그는 완전히 혼자인데, 온 세상에서 것처럼 생긴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은 다 짝이 있지만 아담에게는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입니까? 그러나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큰 나무 옆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한 여자를 빚어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된 복도를 내려갑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브가 홀로 뱀과 함께 동산에 있습니다. 뱀은 이브가 나무에 관심을 갖도록 유혹하며 그녀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보기에 매우 탐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지금 이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 쪽으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볼까요? 아이고 저런!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십시오. 가인이군요.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뒤로한 채 황급히 달아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가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옆에는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아벨의 어머니 이브가 무릎을 꿇고 앉아, 생명이 끊겨 축 늘어진 아들 아벨의 몸을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때 이브의 눈 속에 있던 밝은 빛은 사라지고, 오직 뜨겁게 솟아오르는 눈물만 보입니다. 앞서 보았던 그림에서 웃고 있던 이브의 입술은 이제 깊은 슬픔으로 처져 있습니다.

이제 서둘러 과거의 많은 그림을 지나가 봅시다. 잠깐! 여기에서 멈춰 봅시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군요.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에서 배어 나오는 슬픔이 보입니까? 그는 사악한 도시 소돔에서 열 명의 의로운 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의로운 자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사악한 도시 위에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 아, 여기 아주 강렬한 장면이 있군요! 이스라엘 백성

을 물고 있는 저 뱀들을 보십시오! 여기 구석을 보십시오. 뱀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미소 띤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뱀에 물린 백성 중에서 그 뱀뱀을 올려다본 사람은 누구나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곳이야말로 당신이 지금까지 다녀 본 미술관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매혹적인 곳이 아닙니까?

여길 내려다보십시오! 아니, 다윗이군요. 그는 유대 땅 언덕 중턱에 있는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양 떼는 푸른 벌판에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다윗의 얼굴에 비친 기쁨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양가죽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 23)

여기에 생생한 그림이 하나 더 있군요! 자신이 막 완공한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성전에서 무릎 꿇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또 여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그림인가요! 하늘로 제트기를 타고 가는 듯한 엘리야입니다. 화려한 황혼의 빛이 그의 순결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복도 끝으로 더 내려가 봅시다. 사자 굴을 그린 그림이군요. 사자의 갈기에 머리를 파묻고 편안히 누워 잠자고 있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다니엘이군요. 다니엘의 얼굴보다 더 평화로운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얼 보고 계십니까? 제가 훌륭한 그림 하나를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아, 당신 말이 맞군요! 느부갓네살 왕의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군요! 그들의 얼굴을 보십

시오. 괴로워하거나 겁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불속에 함께 계신 네 번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부르는 듯한 또 다른 그림을 봅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열정이 보입니까? 멋지군요! 정말 훌륭한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오! 저곳에 있는 그림을 감상해 보십시오! 네로 왕의 궁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림이군요. 그는 손목이 사슬에 묶인 채 간수 중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비친 기쁨을 보십시오.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9-10)

여기 있는 이 그림도 보십시오! 자신의 피로 흥건히 젖은 곳에 누워 있는 스테반의 그림입니다. 돌맹이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그에게 죽음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난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나 스테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맞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빛이 가득합니다. 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화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이 그림을 보십시오. 두 명의 간수가 지키는 감옥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군요. 그의 얼굴을 살펴봅시다. 완벽한 평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틀 녘이 되면 그는 사형을 당할 처지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오늘 죽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님께서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 그가 나이 들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요 21:18). 그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깊은 화평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하! 저 그림의 배경을 보십시오! 바위투성이인 작은 섬에 고립되어 있는 백발의 노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세계를 여행하며 시간의 망원경을 통해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주름진 얼굴에 나타난 저 빛을 보십시오! 영광! 영광! 영광! 이는 모든 성도가 환호하기에 충분한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 박물관입니다! 사람들은 책 중의 책인 성경의 광대한 영역 속에서 수 세기 동안 탐험했지만, 그 안의 장관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점의 훌륭한 초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들의 모습을 잠시 응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띄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얼굴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초상화는 쉽게 망각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얼굴은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가져온 가장 역동적인 얼굴(Dynamic face)입니다. 도시와 마을의 바쁜 거리를 걷는 동안 그분의 힘찬 얼굴은 남녀노소 모두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세무서 책상 앞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마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마 9:9)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독자께서도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는 수많은 세금 보고서에 둘러싸인 채 책상에 앉아 등을 구부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자기 옆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올려다봅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시며, 그분의 얼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남자답고 역동적이며 매혹적인 얼굴.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마치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분의 입술이 움직이더니 그분께서 장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순식간에 세리 마태는 벌떡 일어나 세무서 일을 뒤로하고, 역동적인 얼굴의 주인공을 따라갔습니다!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마 4:18-20)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미 그 역동적인 얼굴의 주인공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을 이날, 그들은 해가 비치는 해안에서 물속으로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을 팔꿈치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안드레, 저기 좀 봐! 그분이다!”

안드레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해 몸을 틀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 얼굴에 매혹되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힘찬 얼굴의 주인공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모래밭 일터에 그물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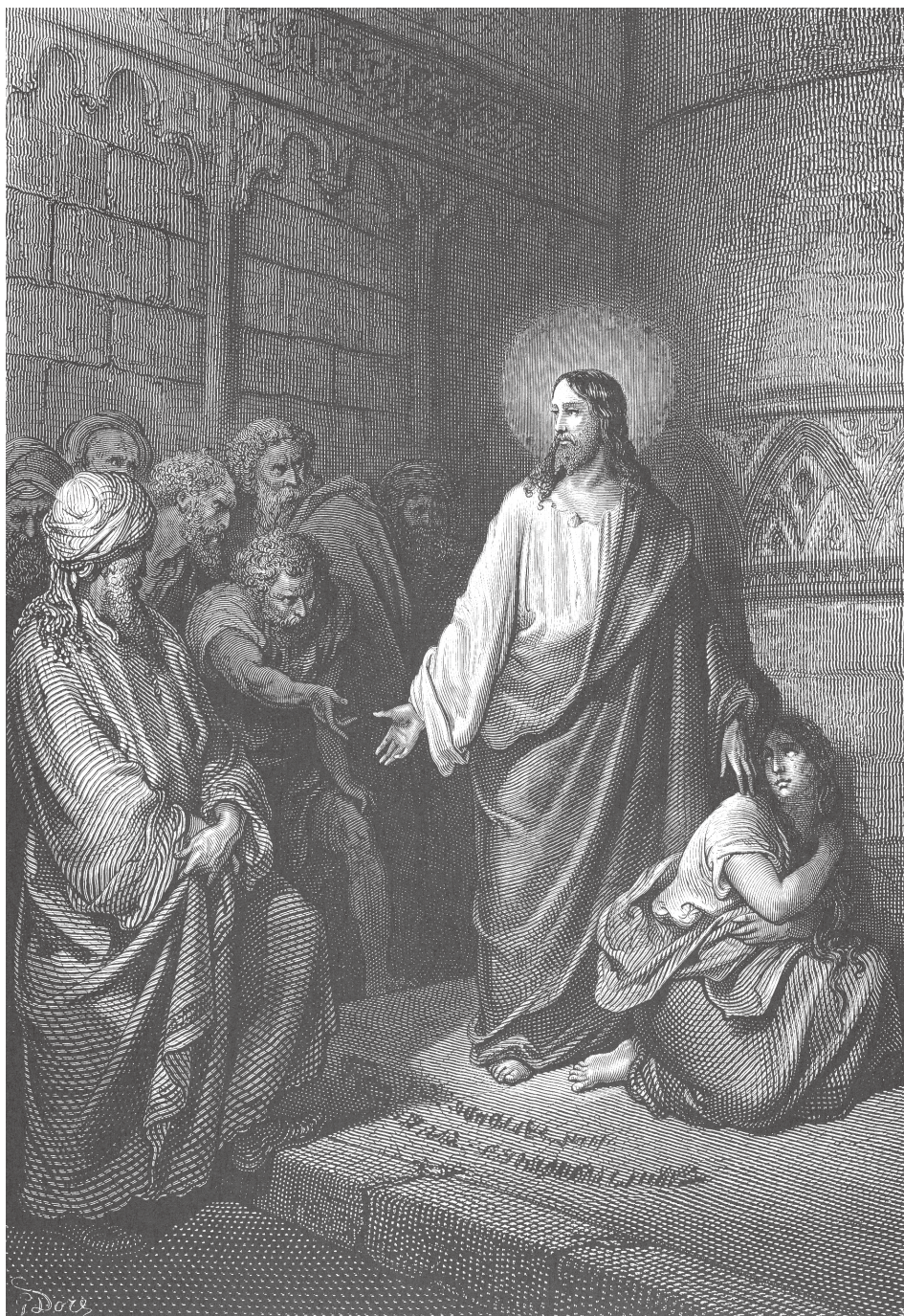
그분을 따르니라. (마 4:21-22)

당신이 이 장면을 예전에 본 적이 있든 없든, 이는 매우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늙고 노련한 뱃사람 세베대와 그의 두 젊은 아들은 배 안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햇살은 바다 위에서 넘실넘실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그림자 하나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려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매혹적인 얼굴의 주인공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연로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역동적인 얼굴의 주인공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인 얼굴이었기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죄로 가득한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달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여기 와서 이분을 만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 경건한 서기관들과 또 ‘누구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진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길 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녀를 죽이려 한 이유는 간음죄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 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요 8:2-11)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요! 우리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당신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¹ 같은 ‘본문 비평 학자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은 실제로 정도가 매우 심한 이단자들이었으며, “위의 성경 구절은 원래 본문에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쓸개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추종자들은 「신미국표준역」(NASB), 「신국제역」(NIV) 및 여러 현대 역본에 교활하게 ‘더 좋은 사본에는 요한복음 8장 2-11절이 없음’이라는 각주를 붙임으로써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혼동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을 포함하지 않은 성경이야말로 왜곡된 성경이요, 거짓된 성경입니다! 훌륭하고 오래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기만 하면, 변개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안에 쥐는 셈입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돌을 집어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저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다루셨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여인을 죽이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의 역동적인 얼굴 앞에서 돌을 치켜들 때, 그

1. 웨스트코트(Brook Foss Westcott, 1825-1903)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성공회 목사들로서 이들은 “어떤 성경도 완전하지 않다.”는 알렉산드리아 철학에 완전히 심취되어 「킹제임스 성경」과 안디옥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에 대해 악의와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1880년대에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가지고 ‘수정된 그리스어 본문’을 편집 출간함. NIV, 「한글개역성경」 등 모든 현대 역본들은 이들이 개악한 그리스어 본문, 즉 ‘비평 본문’(Critical Text)에 기초해서 번역됨.

분은 조용히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만 무릎을 굽혀 앉으시고 손으로 땅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라는 듯 흠 위에 손가락으로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쓰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이 그들의 양심을 쪼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꼬리를 감춘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이 구약 성경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시 14:2-3)

분명히 이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맹렬히 공격했을 것이며, 그 종교적인 위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본성을 직시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하나님의 말씀(히 4:12)으로 인해,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척하던 그 비방자들은 이제 조용히 사라져 버렸고, 주님께서는 다시 앉으셔서 또 다른 글을 적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로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이는 간음한 여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원과 용서와 죄 씻음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말씀만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 19:7)

그래서 저는 땅 위에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두 번째 글도 역시 성경 말씀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간음한 그 여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땅 위에 기록한 내용은 아마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 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 1:18)

얼마나 포근한 순간입니까! 마음속 죄의 갈고리에 걸려 있는 이 가엾은 여인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성경 말씀을 적으시자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흙 위에는 구원과 죄들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까. 눈물이 그녀의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분은 주위를 살펴보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8:10)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죄할 것으로 생각하던 그 여인은 이제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그녀는 그 역동적인 얼굴의 주인공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엄격하고 완고한 분이 아니라 부드럽고 인정 많은 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사람을 붙잡히 여기는 긍휼이 엿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입술을 떨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녀의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역동적인 얼굴의 주인공 예

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8:11)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롬 8:1-2)

할렐루야! 이 가난하고 사악하며 타락한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역동적인 예수님의 얼굴이 인상적으로 새겨졌고 그 이후로 그녀의 삶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린이들이 역동적인 예수님의 얼굴에 이끌린 사실을 주목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어린이들이 그분 주위에 모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저는 종종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무릎 위로 기어올라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곤 합니다.

아이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증오를 퍼부었고 독기 서린 마음으로 그분에게 접근했지만 어린이들은 단 한 번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어른들은 역동적인 예수님의 얼굴을 멸시했고 때렸고 심지어 거기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역동적인 얼굴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증오로 가득한 어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2-3)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진 얼굴의 주인공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던 장소에서 그분의 역동적인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고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하는 책임을 지게 되자 두려워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책임은 빌라도 혼자서 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큰 혼란으로 인해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피에 목말라하는 군중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매다소서

사람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역동적인 얼굴에 있는 두 눈, 즉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두 눈은 빌라도의 겁먹은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갈보리를 향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빌라도는 눈을 지긋이 감고 마음을 굳게 먹고는 그분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찬 얼굴은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역동적인 예수님의 얼굴을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삶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날이 지나고 얼마 안 가서 그는 통치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쫓기는 사람처럼 스위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역동적인 얼굴은 여전히 그의 고통받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따라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에서 불타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원인으로 남아 있는 그 역동적인 얼굴을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얼굴을 자신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처형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손수 지휘한 로마의 백부장을 생각해 봅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이상하고도 지옥과 같은 어둠이 예수님의 모습을 감춰 버릴 때까지 그는 세 시간 동안 피와 땀과 침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역동적인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 빛이 되살아났을 때 그는 보기 흉하고 피 묻고 부어오른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께서 자신의 혼을 자신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 속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머리가 앞으로 기울면서 그분의 역동적인 얼굴은 형묘 조각으로 기워 만든 인형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을 자극하며 흘러내리는 눈물과 싸우며 그는 외쳤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막 15:39)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수백억 개의 얼굴이 존재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항상 매력 있게 우리를 사로잡는 역동적인 얼굴은 결코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제 눈으로 제 주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그 얼굴을 그려 보곤 합니다. 저는 그 훌륭하고도 힘찬 얼굴을 제 기억 속에서 사진처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얼굴이 매우 잘생겼고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추하게 생기고 매력적이지도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펴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사 53:2)

이 말씀의 문맥을 무시하면 예수님께서 보기 흉하게 생겼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빼어나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앞 장을 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은 네 번씩이나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Zion)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중 세 번은 그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고 하며 나머지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제시하는 그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 즉 그분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올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사 53:1)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분을 확실히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사 53: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다름 아닌 유대인들 아닙니까? 같은 절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흰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통치자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박해자들을 짓밟고 속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갈릴리의 목수로 나타나자 유대인들은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볼품 없는 분이었다고 그릇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묘사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노래, 즉 아가서에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신 성도들이 주님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 불그스레하니 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술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뻗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니라. (아 5:10-16)

부디 독자들은 제가 밑줄로 표시한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용모에 대해 솔로몬이 무어라 기록하고 있는지 독자께서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뻗어나고 (아 5:15)

저는 지금 제 앞에 「웹스터 사전」을 펴놓고 있습니다. 이 사전을 보니 ‘용모’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1. 표정(Facial expression)
2. 얼굴, 안색(The face; visage)
3. 찬성, 지지(Approval; support)

세 번째 정의는 지금 이 문장의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정의도 문맥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의 노래, 즉 아가서 5장이 그분의 육체적인 외모의 특징을 묘사하지, 그분의 태도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에서 “그분의 용모는 뻗어나다.”는 구절이 예

수님의 얼굴에 대해 언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생겼고 매력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또한 그분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결코 여성적인 의미의 ‘사랑스러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람한 남성으로 역동적이며 매우 잘생기고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는 특별히 그분의 모습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신의 말씀 속에 정확히 묘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갈보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얼굴에 묻어 있는 피와 땀을 닦아 내던,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천 조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그 천 조각에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우상 숭배 놀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 번 시험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온통 피와 땀으로 적셔 보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고 하얀 천을 당신의 얼굴에 대고 눌러 보십시오. 그 천을 바라보고 그 피와 땀방울이 당신의 얼굴 모양처럼 보이는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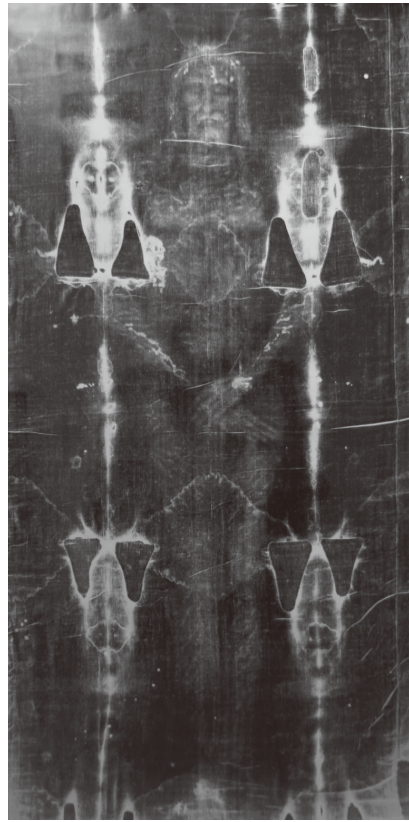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남아 있는 얼굴 형상

1947년에 키나만(Dr. John O. Kinnaman)이라는 고고학 박사는 이탈리아 서북부 알프스 산록의 공업 도시 투린(Turin)에 있는 수의(壽衣), 즉 ‘튜린의 수의’(Shroud of Turin)로 알려진 옷에 관해 강의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로마 카톨릭교회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우상 숭배자들의 새로운 세대를 열기 위해 이러한 속임수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수의는 이탈리아의 투린에 있는 카톨릭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의

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그분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미라 천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나만과 더불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천은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 어떤 분들은 이 ‘수의’가 담긴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머리털이 어깨까지 내려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잘못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명 ‘튜린의 수의’로 불리는 천

1. 예수님의 머리털은 솜털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털은 그분의 머리에 착 달라붙어 있었으며 땀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피는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때문에 흘러나왔습니다.

2. 의학 박사들은 그 가시들의 뾰족한 끝부분에 있는 독이 예수님의 혈관으로 들어가 그분의 머리를 적어도 평상시 크기의 1.5배 정도로 부풀게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이사야서 52장 14절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튜린에 있는 ‘수의’는 예수님의 머리가 보통 크기였음을 보여 줍니다. 이런!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 ‘수의’로 우리 눈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여자들처럼 머리털을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리지 않았습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자신의 남성다운 본성을 위반했을 뿐만 아

나라 성경을 위반한 것입니다(고전 6:9; 11:14를 보십시오).²

4. 튜린의 수의는 미리 짜 맞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롬 13:9)

로마에 있는 성 칼리스토(그가 성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의 교회당에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 적도 있는 한 미술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오래된 프레스코 그림, 즉 갓 칠한 회벽토에 그린 수채화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는 ‘안디옥의 성배(聖杯)’, 즉 최후의 만찬 때 포도즙을 담은 잔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배에 그려진 얼굴이 예수님을 보았던 미술가가 실제로 그분의 얼굴을 그린 것이며, 따라서 그 그림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완전히 닮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베로니카의 손수건’ 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튜린의 수의’에 나타난 형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성 칼립소 성당... 아, 죄송합니다. 성 칼리스토 성당 안에

2. 한편,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고전 11:14)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근본주의 신학교 학생과 목사들같이 짧은 머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태어나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 가장자리를 등글게 깎지 말며 네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레 19:27)라는 말씀에 따라 어느 정도 긴 머리를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남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라 남자는 머리를 짧게, 여자는 길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있는 프레스코 그림과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성배에 그려진 얼굴은 나머지 세 개의 얼굴 중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에스겔서 1장 3-6절에 나오는 생물과 같이 예수님께서 네 얼굴을 가졌다고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오는데 그것의 주변에는 광채가 있고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며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 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으며 (겔 1:3-6)

분명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주님 얼굴의 외적 모습과 똑같은 형상을 이 지구상 어디에도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용모가 아름답다 해도 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분의 용모에 담긴 영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순결, 의, 그리고 영광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이제 저는 당신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 드리려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I. 어제

어제는 역사입니다. 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시간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두 사건이 사도 바울에 의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1. 창조(Creation): 하나님께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고후 4:6). 당신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그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 1:3). 따라서 시간이 처음 시작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2. 구속(Redemption):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고후 4:6). 우리는 다 어둠에서 시작되었습니다(사 59:9-10; 요 3:19; 엡 4:18).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에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속에 자신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에 반응했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지만, 환히 빛나며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빛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4:3-4)

이 복음의 빛이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이 책을 읽는 독자께서 구원받았다면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달콤한 복음의 빛이 당신 속의 어둠을 파헤치고 들어갔을 때, 당신은 자신이 소망 없이 살며 지옥에 갇혀 있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이 붙잡고 있던 인생철학이나 종교의 어둠을 뚫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지옥으로 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했고(눅 13:3) 예수님께 요청했으며(롬 10:13)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요 14:6). 당신은 마음속에(엡 3:17) 그분을 모셔 들였고(요 1:12)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고후 5:17; 엡 2:10).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구속(救贖) 혹은 구원 역시 하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그것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가 아닙니까? 이 얼굴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실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멋지고 역사적인 인물이며 놀라운 분이요 속죄하는 분이요, 역동적인 얼굴로 힘차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그리고 심장이 뼉 때마다 영광을 주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햇빛 안에도 영광이 있었으며 어둠 속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도 영광이 있었고 골짜기 안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이 건강하게 지낼 때에도 영광이 있고 아프게 지낼 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일어설 때에도 영광이 있고 앉을 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에도 영광이 있고 슬플 때

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 속에 모시고 있을 때에는 낮에도 영광이 있고 밤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에도 영광이 있고 패했을 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을 때에도 영광이 있고, 너무 가난해서 자동차 범퍼의 볼트 한 개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피로 씻겨져서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된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께서 예비해 주신 충만한 영광, 즉 천국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세계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이 세상까지 발산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거하셨으며, 자신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성경은 세 종류의 ‘영광’에 대해 말합니다.

1. 인위적인 영광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마 4:8)

이는 사람이 만든 영광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영광입니다.

2. 자연적인 영광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이는 자연의 영광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주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여러 색상의 아름다운 코트’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3.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고후 4:6)

이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지고 하늘들 역시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하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시여, 당신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알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이 다음과 같은 멋진 표현 속에 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립니까? 그들의 손바닥을 떠올립니까? 혹은 발바닥이나 뒤통수를 떠올립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얼굴로 사람을 확인합니다. 상호 간의 친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바로 얼굴입니다.

저는 제 아내 조니를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깊고 아름다우며 또 매우 개인적입니다. 제가 그녀를 제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

다 사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제 아이들과 손자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과 달콤하고 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그들을 그럴 때면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 부모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매우 존경하며 마음속 깊이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저의 관계는 매우 훌륭한 관계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외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나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훌륭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얼굴마다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들의 손톱이나 귓바퀴 혹은 발가락을 떠올리지 않고, 얼굴에 담겨 있는 관계를 이용하여 그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만일 우리에게 얼굴이 없다면 얼굴 이외의 몸의 다른 기관을 보고 개개인을 구별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과 나무와 꽃 속에는 비록 형태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 주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어린 소녀의 말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의 어머니는 이제 늦었으니 가서 잠자리에 들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막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야야, 무서워할 필요 없단다. 주님이 바로 네 방에서 너와 함께 계시단다.”

그 꼬마는 작은 눈으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예요?”

“응,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라고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 방 어디에서든 그분을 볼 수 있단다. 그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근데, 엄마.” 꼬마는 슬픈 듯이 코를 훌쩍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얼굴이 있는 분이 좋아요!”

우리도 다 이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모습과 형태를 가진 분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개인적인 관

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를 입으시면서 어제, 즉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II. 오늘

지금 이 순간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 위에서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히 1:3, 13)

그렇지만 그분은 바로 이 순간에도 신비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엡 3:16-17)

주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과연 어디에다 자신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즉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고전 1:23-24)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영광의 빛을 제 마음에 비추셨으며, 그 결과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배워 보도록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됩

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모가 우리의 용모를 잘 다듬게 해서 그분의 빛이 우리 속에서 반사되어 이 세상에 빛을 잘 발하게 해야 합니다.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잠 27:17)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그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아요.”

“뭐? 네가 안다고?”

“네, 예수님께서는 엄마처럼 생기셨어요!”

그 꼬마는 엄마의 얼굴에 반사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시여, 저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얼굴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III. 내일

요한은 미래의 그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 3:2)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

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저는 십 대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해를 보내면서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께 충실하지 못할 때에도 제 곁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버렸을 때에도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헤맬 때에도 그분은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눈물이 제 얼굴을 흠뻑 적셨을 때에도 그분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할 때에도 제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구원자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친히 세우신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실하신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제게 복을 주셨고 저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늘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분을 뵈는 적이 없습니다.

오, 제가 얼마나 그분을 뵈는 날을 고대하는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 3:2)

다윗은 다가올 그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에 관한 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5)

오, 영광이여!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낮은 세상에서 죽게 되어 눈을 감았

다가 저 높은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눈앞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얼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주먹을 맞은 그 귀중한 얼굴, 가시관 때문에 피로 물들어야 했고 성난 군중들이 내뿜은 침으로 얼룩진,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눈물로 흥건히 젖은 그 온유한 얼굴.

오, 영광이여! 저는 그분의 얼굴을 곧 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뵈게 될 때 저는 겸손히 그분의 못 박힌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것도 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분의 목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분을 제 품에 끌어안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의 고통과 천둥 같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 호수에서 저를 건지기 위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크로스비(Fanny J. Crosby)는 생후 6주 되던 때에 외과 의사의 잘못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단 한 번도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소녀 시절에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수많은 복음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내게 들려 주시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마케스티 찬송가 121장)”, “인애하신 구세주여(25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153장)”, “사랑의 주께서 부르시네(240장)”, “오! 놀라운 구



패니 제인 크로스비

세주 예수 내 주(357장)”, “십자가로 가까이(404장)”, “저 죽어 가는 자 다 구원하고(211장)”, “예수 나를 위하여”, “구속받았네” 등과 같은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1915년, 95세가 되던 해에 크로스비는 병원 침상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침대 주위에 모였을 때 그녀는 가냘픈 손으로 손뼉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평생을 장님으로 지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폐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째서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사랑스러운 성도 크로스비는 여전히 손뼉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저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천국으로 가게 되죠. 제가 가장 먼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은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크로스비는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출판했던 마지막 찬송가 중 한 편에 기록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내 일생의 사역이 끝나고
넘실거리는 인생의 파도를 넘게 될 때
빛나고 영광스런 아침을 보게 될 때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리라
파도 저편에 다다를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겨 주시는 그분의 미소를 보리라!

만일 당신이 아직도 ‘결단’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제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예수님의 역동적인
얼굴을 뵈게 될 때 얼마나 기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 그분을 뵈기 원하네
그분의 얼굴을 보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광스런 길을 갈 때에
내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모든 염려 사라지고 안식처에 인도되니
어찌 아니 기쁜가!





The Dreadful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2장

무서운 얼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벧전 3:11-12)

인류의 역사란 사실 사라져 가는 얼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백만, 아니 그 수백만을 곱한 수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과연 누가 그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인류 전체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명성을 얻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명사들의 얼굴을 잠시나마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심지어 매우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 전의 영화배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과연 누가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서 몇 명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르보(Greta Garbo), 믹스(Tom Mix), 보우(Clara Bow), 비어리(Wallace Beery), 스콧(Lizabeth

Scott), 크레가(Laird Cregar), 베네트(Joan Bennett), 딕스(Richard Dix), 다르넬(Linda Darnell), 레인스(Claude Rains), 러셀(Gail Russell), 자르만(Claude Jarman), 오브라이언(Margaret O'Brien), 그리고 히컨(Daryl Hickman) 등. 이들은 한때 매우 유명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배우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들의 사진을 보는 미국 사람 중에서 이들을 알아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역사는 사라져 가는 얼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 전의 스포츠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당신이 미식축구 팬이라면 공을 던지고 있는 바우(Sammy Baugh)의 사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소프(Jim Thorpe)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데이비스(Glenn Davis)나 블랜차드(Doc Blanchard), 혹은 화이트(Byron White)는요? 음... 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한 스포츠 우상들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야구 팬이라면 열 명의 선수들 중에서 게릭(Lou Gehrig)의 사진을 골라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넬슨(Don Nelson)은요? 아니면 존슨(Walter Johnson)은요? 하지만 이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권투 팬이라면 마우리엘로(Tami Mauriello)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가 누구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1946년경에 루이스(Joe Louis)와 권투 경기를 했던 이탈리아의 헤비급 선수입니다. 첫 라운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마우리엘로는 화물 열차처럼 링을 가로질러 진격해서는 한 방에 루이스를 거의 KO시켰습니다. 루이스는 첫 라운드 내내 비틀거렸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 무서운 주먹 때문에 미국 내 모든 신문의 일면과 모든 스포츠 잡지의 표지에는 마우리엘로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그 정도로 마우리엘로는 그 당시 매우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그의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당신은 사진이 수북이 쌓여 있는 곳에서 암스트롱(Henry Armstrong)의

사진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코빗(James J. Corbett)은요? 펍(Willie Pep)? 바실리오(Carmen Basilio)? 가빌란(Kid Gavilan)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모두 당대에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사라져 가는 얼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가나 정치적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중에 매우 유명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통 미국 시민들은 워싱턴, 링컨,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정도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미국 돈을 만집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지폐에 담긴 얼굴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당신이 얼굴을 잘 기억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십만 달러 지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관찰력이 날카롭지 못하군요. 그렇지요? 그 지폐에는 윌슨(Woodrow Wilson)의 얼굴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유는 십만 달러 지폐를 거의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 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지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 맞춰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한 장 꺼내 보십시오. 아! 거길 보십시오! 이제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법관 채이스(S. P. Chase)입니다!

오천 달러 지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아니, 기억 못 하시나요? 자, 찾아보십시오. 물론 금방 맞힐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이 매디슨(James Madison)입니다.

천 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또 난처한 질문을 했나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에는 ‘로버’(Rover)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오대호의 하나인 에리 호수 해변에 위치한 도시, 즉 오하이오 주 북부에 있는 큰 도시 이름과 같습니다.

이제 맞춰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예, 고맙습니다. 맞히셨군요! 클리브랜드(Grover Cleveland)입니다!

오백 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것도 머리를 좀 어지럽게 하는 애매한 문제입니까? 눈을 감고 오백 달러 지폐를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 돈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죠. 그 사람은 매킨리(William McKinley)입니다.

이제 수준을 낮춰 쉬운 문제를 풀어 봅시다.

백 달러 지폐에는 누가 담겨 있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주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을 담은 지폐가 뭉치로 나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당신에게 힌트를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힌트를 드려야겠군요.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며 그의 이름과 성은 각각 'B'와 'F'로 시작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다른 힌트를 드리죠. 그는 '염가 상품 판매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것입니다! 정답입니다! 그 사람은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입니다!

오십 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을까요?

매우 쉽죠? 하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의 이름은 페넬로페¹라 불리는 귀여운 여인을 사랑한 소설 속의 전사(戰士)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직도 애매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힌트를 드리죠. 그는 그랜트²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딩동댕! 그가 바로 당신이 원했던 답입니다. 정확히 맞혔습니다! 그랜트(Ulysses S. Grant)입니다!

이십 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1. 그리스 전설에서 나오는 올리스스의 정숙한 아내로 남편이 없는 동안 많은 구혼자를 물리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2. 그랜트(1822-1885)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었으며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남군을 격파했다.

오오, 자, 해 보시죠. 이 문제는 당신이 난처해질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번두리 찻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여종업원에게 팁을 주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신은 조금 더 기억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인물은 잭슨(Andrew Jackson)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작고 시시한 것까지 내려가 봅시다. 소액의 돈 말입니다.

십 달러 지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답이 입안에서 맴돌고 있다고요? 그렇죠? 대공황이 사라진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당신은 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좋습니다. 그의 이름은 래그타임³ 악단을 소유했던 사람과 같습니다. 해내셨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맞히셨군요! 뭐라고요, 고르비치크(Alexander Gorbischik)라고요? 아닙니다. 해밀턴(Alexander Hamilton)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가 해밀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시험해 보는 거죠, 맞죠?

오 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을까요?

물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기가 피곤하시죠? 맞죠? 그래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은 유명한 자동차 회사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머큐리(Abraham Mercury)? 아, 정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아브라함 에드셀(Abraham Edsel)?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가는 맞습니다. 또 다른 힌트를 드리죠.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며 그의 성은 'L'로 시작합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입니다!

뭐라고요? 성은 틀렸지만 이름은 정확히 맞혔다고요? 역대 대통령은 잘 모르지만 성경은 확실히 안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에 답해 보십시오. 이삭의 아버지의 성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동안 마지막 지

3. 초기의 재즈 음악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음악 형태로 싱커페이션(syncopation)이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폐 문제를 풀어 봅시다.

일 달러 지폐에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하, 또 곤란해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봅시다. 작년에 당신의 장모님 혹은 시어머니께서 생일 선물을 사라고 주셨던 바로 그 돈입니다. 아니 2년 전이었다고요? 맞아요. 2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분은 그 돈을 주면서 2년 치 생일 선물을 한 번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억났군요. 워싱턴(George Washington)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게 화를 내고 있군요. 그러나 이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져 봅시다. 인류의 역사는 사라져 가는 얼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며 죽은 후에 잠시 지속되는 작은 흔적만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작은 흔적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 가는 얼굴들을 걸어놓은 회전문입니다. 수많은 남녀의 얼굴이 왔다가 사라져 갑니다. 매우 탁월한 인물조차도 망각 속으로 사라져 결국에는 잊히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놀라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얼굴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분은 약 2천 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향과 그분의 뛰어난 능력과 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분의 얼굴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단지 3년 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외딴곳에서 사셨고 단 한 번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사망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이나 예술품 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진사도 그분의 모습을 찍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가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특징이 어떻다고 기록한 역사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2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

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성경은 육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다음의 말씀이 그 예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벧전 3:11-12)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모든 존재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죄를 매우 미워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악을 대적하십니다. 또 그분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대적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십시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벧전 3:11-12)

이 말씀은 곧 주님의 얼굴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적함을 보여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욥 8:20)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 (사 13:11)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히리라. (잠 2:22)

오늘날 곳곳에 만연해 있는 그릇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벧전 3:11-12)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은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니라. (잠 28:9)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 기록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우리 주님께서서는 피로 씻겨 다시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악을 품을 때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마음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말을 그분이 들으신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요 8:21, 24). 그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행 8:21). 따라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전달되게 할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벧전 3:11-12)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말들이 떠돕니다. “만약 불교 신자가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은 “이슬람교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같은 하나님께 이름만 달리 불러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미국의 성공회 카테일 파티에서는 이런 말들이 매우 달콤하고 감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 14:6)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다. (엡 2:18)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 5:22-23)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일 2:23)

성경은 전능하고 참되며 살아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벧전 3:11-12)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계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시 34:15-17)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시 8:2; 약 4:4).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유일한 대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이 일은 그분이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 1:14)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골 1:19-20)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악한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만일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지금 불타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무서운 얼굴(Dreadful Face)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상태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행 17:30-3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눅 13:3)

회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회개란 당신이 마음을 바꾸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 살면서 지었던 사악한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 당신이 집착하고 매달려 왔던 종교나 철학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 죄와 불의의 길을 걷던 때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귀를 섬기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고 나아가던 방향, 곧 지옥을 향하던 발걸음을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아직도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180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당신의 사악한 죄로 인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분명히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침례(세례), 교리문답서, 기도, 양초, 사제, 마리아, 방언, 선행, 끝까지 신실하기, 헌금, 성가대, 주일 학교 교사, 강단에서의 설교, 걸 스카우트 간식 사기, 그 밖의 다른 일들을 모두 행하거나 혹은 그것들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그 외에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죄(당신이 믿었던 종교를 포함하여)를 기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기꺼이 믿는다면 그분께서 곧바로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분께 간구하는 일뿐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2-13)

구원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일해서 벌 수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선물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3)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과, 이 영생을 침례, 성찬식, 십자가, 목주, 마리아, 교황, 사제, 목사, 교회, 종교 단체, 혹은 당신의 선행 등으로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 1:12)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엡 3:17)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 3:20)

얼마나 단순한지 보셨습니까? 모든 철학과 종교를 떨쳐 버리십시오. 당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악한 죄인이었지만, 이제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고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지금 당신이 처한 곳에서 즉시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저(역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도 당신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보내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다른 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던 본래 문제로 되돌아갑시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 아니라. (잠 1:28-30)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욥 27:8-9)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시 18:41)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멀리하시나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잠 15:29)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시 145:18)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다 악이며, 주님의 얼굴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요 9:31).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때는 그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간구하는 때입니다(행 10:31-48).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의 기도가 구원받기 위한 기도일 때만 그분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눅 23:42-43).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피로 씻김받는 것’도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며 해답을 얻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신(god)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4:4)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다 사탄의 자녀입니다(마 13:38; 요 8:44). 사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며 또 그러한 식으로 죽어 가는 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에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의 무서운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얼굴은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극도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극도의 엄하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롬 11:22)

세상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드러난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꺼립니다. 이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선하심도 있고 엄하심도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벧전 3:11-12)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엄하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자들의 99%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또는 라디오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99%가 어떤지 그들의 설교를 귀담아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설교에서 지옥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될 불 호수에 대해 들어 본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흰 왕좌 심판은? 도대체 이러한 교리들이 성경에서 없어졌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허버드 할머니(Old Mother Hubbard)⁴, 모세 할머니(Grandma Moses), 레머스 아저씨(Uncle Remus)⁵, 그리고 번스(George Burns)와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롬 11:22)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 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벧전 3:11-12)

4. 자장가에 나오는 여주인공.

5. 갓난아이 때 늑대에 의해 양육되었다고 전해지는 로마 신화 속의 인물.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적합니다! 이 진리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I. 구약 성경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주어 딸감이 되게 한 것같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그렇게 내주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그들이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니라. (겔 15:6-8)

당신은 이 구절에서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준엄함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그들을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백성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 도시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곳이 바빌론 왕의 손에 주어지리니 그가 그곳을 불로 태우리라, 하라. (렘 21:10)

예루살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당신은 주님의 얼굴에서 노여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내가 참으로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레 17:10)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피를 경건하게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

를 경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 이스라엘 안에 체류하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 누구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레 20:1-3)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바침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죄로 인해 주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들을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규범들을 혐오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면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레 26:14-17)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정해 주신 교훈을 백성이 따르지 않을 때 진노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는 사실과 그분의 얼굴이 그들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사건, 사악한 인류가 노아의 대홍수로 멸망한 사건, 성적으로 타락

한 자들이 소돔에서 불탄 후 재로 바뀐 사건, 음란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추방된 일, 거만한 사울 왕이 자신의 왕국을 잃은 일, 세속적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잔치에서 자신의 피를 술잔에 섞으며 멸망한 일, 다윗이 자신의 부도덕함으로 인해 책망받던 사건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입니다!

II. 신약 성경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께서 곧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영어로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출 3:14)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I AM), 하시니라. (요 8:58)

구약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마 1:2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얼굴을 돌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대주의자들, 자유진보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교회가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옳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것같이 연약한 분, 즉 긴 머리의 여성스럽고 나약한 대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머리 위에 둥그런 후광을 지닌 채 달콤한 말로 우아한 이야기만 하고 늘 신사다운 행동만 하는 ‘연약하고 작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늘 상냥하고 달콤한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맞습니다. 부드러운 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동정심이 넘치는 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사(戰士)이기도 합니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출 15:3)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력하신 **주시**요, 전투에 강력하신 **주시**로다. (시 24:7-8)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계 19:11)

이 세상의 거짓 종교를 숭배하는 어중이떠중이들에게는 역사 속의 그리스도, 요한이 밧모 섬에서 보았던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그리스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얼굴을 돌려 대적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상한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화를 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후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돈을 여기저기 던져 버리고 강도들을 길가로 끌어내신 그리스도는 현대의 일부 ‘목사들’과 텔레비전 방송 설교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요 2:13-17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 당시 증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도덕적인 분노로 인해 질게 붙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그랬단 말입니까?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또 다른 예를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알려고 그분을 지켜보니 그분께서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므로 그들의 마음이 강박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하고 그분을 대적하여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막 3:1-6)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 화를 내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오늘날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세상이 그분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조만간 오늘날의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불타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주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종교적 가르침이 예수님을 약하고 작고 듣기 좋게 말하는 분으로 제시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예수님

되면 심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는 화가 있고 강하고 거룩한 분이 내는 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가치관으로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화하고 연민이 많은 분이라는 말만 듣기를 원하며, 그분이 준엄하시다는 말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설교를 들어 보면 그들은 대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만 말하려 하며, 그분의 준엄하심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책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인내와 인정에 대해서만 말하려 하며, 그분의 준엄하심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드럽게 타는 램프처럼 생각합니다. 그분을 과격하게 타오르는 용광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용하게 속삭이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결코 분노로 가득 찬 폭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조용한 강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격렬하게 소리를 내는 채찍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향기를 내는 향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죄라는 쓰레기를 불태우고 말끔히 만드는 염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빛나고 그분의 말씀은 불을 일으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저 불타오르는 말씀은 언젠가 분노와 맹렬함으로 원수들을 강하게 칠 것입니다(계 19:15-21을 보십시오).

우리는 번개처럼 불타는 능력을 가지고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한때 웹스터(Daniel Webster)가 연설을 하자 어떤 사람은 그의 눈이 ‘발산하는 불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버지니아 주의 작은 재판소에서 헨리(Patrick Henry)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의 얼굴이 불꽃처럼 빛났던 장면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분의 거룩한 마음은 불타올랐고 그 불꽃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무서운 얼굴 대신 웃는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를 떠나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인해 거룩한 홍조가 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저 같은 사악한 죄인들을 몹시 사랑해서 갈보리로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옥의 깊은 곳까지 가셨으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떠맡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신 이후에는 그분의 얼굴이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은 아직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은 아직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위에는 예수님의 피가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방울은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대적입니다.



The Disappointed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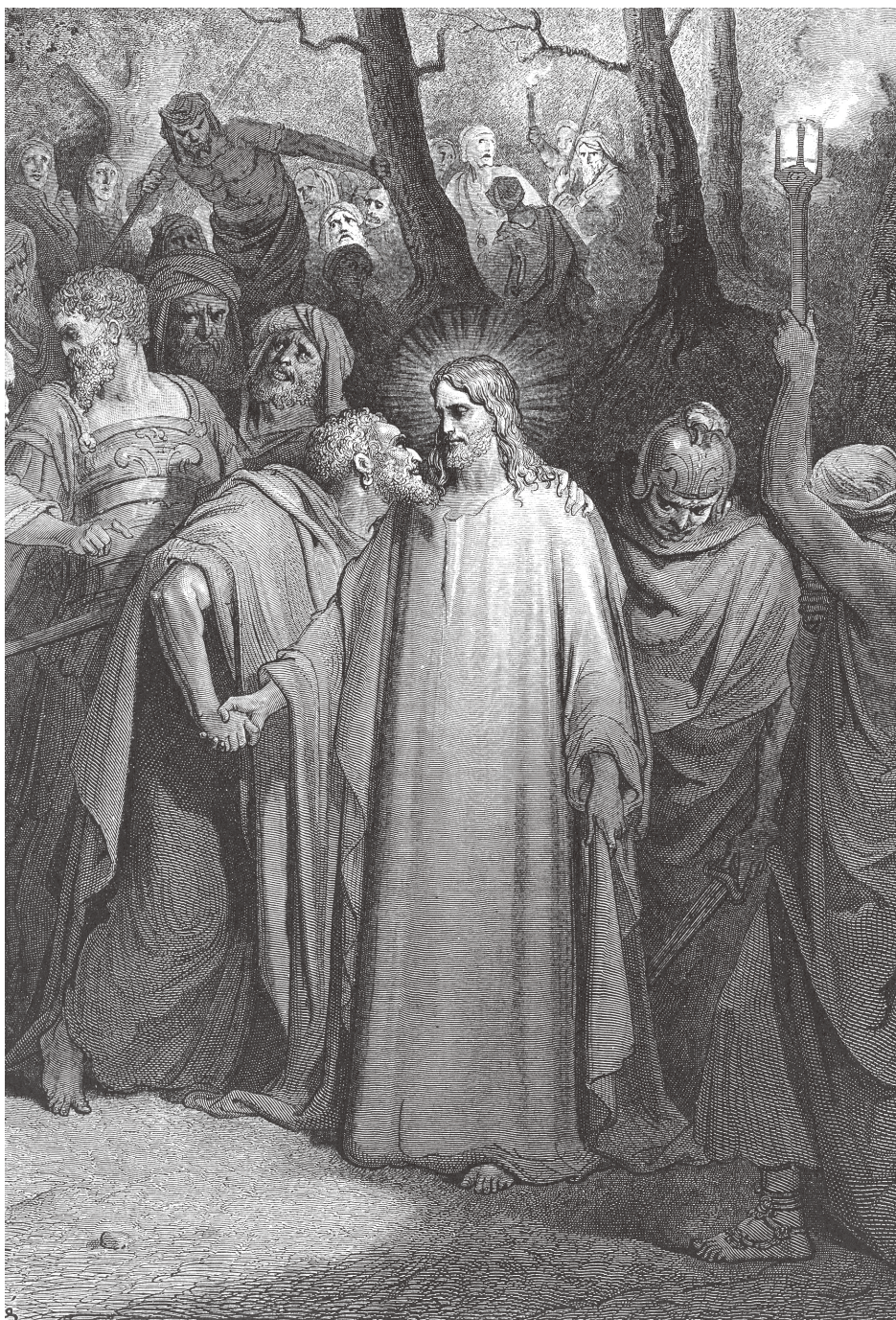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3장

실망한 얼굴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 41:9)

우리는 삶 속에서 거의 매일 몇몇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속에 실망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체통에 갔을 때, 편지가 없음을 확인한 어떤 외로운 여인의 얼굴을 보기 바랍니다. 생일 선물 포장지를 뜯었는데 자신이 원하던 선물이 아니었을 때, 실망한 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시험을 치른 후 학점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을 때, 실망한 학생의 얼굴도 있습니다. 또 급여가 확실히 오르리라 기대했는데 급여 내역서를 받은 후 전혀 변하지 않은 금액을 확인했을 때 실망한 샐러리맨의 실망한 얼굴도 있고, 호텔 방을 예약하고 지친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했는데 예약한 방은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고 호텔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머물 곳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한 여행자의 얼굴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을 가져다주는 주변 환경은 다양하고 수없이 많습니



가롯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예수님

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사건 중 가장 큰 일은 친구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실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분노로 당신의 얼굴 표정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당신은 두 마음을 품은 가룟 유다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슬며시 걸어 나와 예수님의 뺨에 독이 든 입맞춤을 했던 그 밤에, 우리 주님의 얼굴에 새겨진 실망의 표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 광경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배신자의 입술이 얼굴에 닿았을 때 구원자 예수님의 부드러운 눈 속에 슬픔이 나타났고, 그분의 축 처진 턱과 머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음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밤이 오기 약 천 년 전에 성령님은 다윗을 감동시켜서 주 예수님의 슬픈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 41:9)

예수님도 친히 이 성경 말씀이 유다의 배신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3:10-11, 18)

주 예수님, 바로 그분 외에는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로 인한 실망의 고통이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사무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일이 어떻게 끝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다가 저지를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속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다락방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분이 실망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실제로 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웹스터 사전에는 ‘실망하다’(disappoint)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다.” 유다가 위선자였으며 처음부터 ‘마귀’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요 6:64, 70). 이 점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겨우 은 서른 개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가 정말로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당신은 시편 41편 9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친한 친구’로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며 3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 곁에서 살았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할지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곁에 다가와 이제 막 배신하려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가리켜 ‘친구’라고 부르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으므로 (마 26:49-50)

실제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친구’ 관계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추하고 작고 영큼한 배신자가 온 서른 개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분은 여전히 유다의 친구였습니다. 그 잔인한 배신 행위로 인해 주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까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에 새겨진 저 실망의 표정을 머릿속에 그려 보고 또 그려 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신실한 친구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깊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과 정말 진실한 우정을 맺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배신하여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면 그때의 마음속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실망이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에 얼마나 깊이 사무쳤는지 당신도 이제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분같이 진실한 친구는 결코 없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을 친구로서 바라봅시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귀한 얼굴에 나타난 실망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과 죄인들의 가장 좋은 친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의도적으로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 자신의 피로 대속한 구원의 문은 그분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여러 종류의 죄를 지은 죄인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죄인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는 제가 그분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분이 제 친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악하고 악독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은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내셨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 은혜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여!

성도 여러분, 당신과 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 (잠 18:24)

이 말씀이 의미하는 친구는 실제로 주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자신이 몹시 사랑하는 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 봅시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니라. (아 5:16)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 곧 자신에게 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 주는 분으로 표현했으며 또한 친구라고도 불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지위로 볼 때 그분은 하나님, 주님,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직무상으로 볼 때 그분은 대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십니다. 한 인간으로 보면 그분은 친족 구속자, 중재자, 그리고 친구이십니다. 제가 매우 기쁘게 여기는 일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친구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요 15:14)

분명히 우리와 우리 주님 사이의 ‘친구’ 관계는 우리 자신과 위대하신 친구

예수님과과의 연합이 강력하다는 점과 영적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저버렸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마다 저는 바로 이 친구 관계 때문에 그분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잠 언 17장 17절을 펴놓고 읽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잠 17:17)

그분이 저의 진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른 척하고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분을 실망시킬 때조차도 그분이 늘 저를 사랑하며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친형제보다 더 친근하며 늘 제 곁에 있는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저를 향한 그분의 넘쳐나는 사랑을 줄이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요 13: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 복된 호칭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받고 시험받고 마음 아파할 때 그분이 어떻게 염려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자녀들이라, 하시며 이렇게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얼굴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며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셨느니라. (사 63:8-9)

위 말씀은 그분의 우정을 참으로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유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

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렘 32:39)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살펴봅시다.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친구들, 다시 말해 가장 긴 시간 동안 친구로 사귀어 사귀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친구이셨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기도 훨씬 전에, 태양이 거대한 불꽃을 하늘로 내뿜기도 전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의 궤도를 끊임없이 돌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지옥의 불꽃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 13:7-8)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요 10:11)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

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엡 1:3-4)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을 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곧바로 그분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간청하고 우리를 뉘우치게 하려고 자신의 귀한 성령님을 보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더 이상 우리와 친구로 지내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믿음직스러운 친구로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서 방황하며 그분께 반항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구속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붙잡히 여기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시며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직스러운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자신의 의와 거룩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긍휼도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요구하는 엄격한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우리를 호되게 책망해야만 할 때,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우리를 훈련시켜야 할 때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친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잠 27:6)

그분께서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저의 결점과 잘못들을 지적해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우리의 친구로 다정하게’ 드러내셨습니다(잠 18:24). 그분은 종종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계 2:14)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히 12:10).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위대한 친구이십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려 하는 친구들이 이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 상당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마음도 있고 또 도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강하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의 소유자이시며(엡 3:8) 그분이 가진 것은 모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떠한 상황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대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나쁜 친구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섬기게 한 후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즉 죽음의 시간에 그들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길 잃은 사람이 죽어 갈 때 사탄이 그곳에서 그를 안내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 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사실 사탄이 그들을 다 이용하고 나면 나쁜 일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평생 동안 사탄을 섬기지만 죽음의 천사가 떨고 있는 그들의 혼을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는 시간에 그는 째짜게 그들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시 23:4)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망의 문으로 인도할 때에도 어떤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니,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아닙니까? 자신의 양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선한 목자께서는 다시 생명을 찾아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다시 토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은 질척질척한 더듬이로 저의 구원자 예수님의 주위를 휘감았지만 결코 그분을 그 속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독침을 쏘았지만 계속해서 독침이 거기 있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덤은 돌로 만들어진 싸늘한 벽으로 예수님을 덮었지만 결코 예수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살아나셔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죽음은 결코 우리와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

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은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계곡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무찌르고 그 쏘는 것을 없애고 무덤의 권세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빛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대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림자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사망은, 다시 태어나고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아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믿음직하며 능력 있고 영원한 친구임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친구인 어떤 사람이 그분을 배신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배신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분의 귀한 얼굴에 큰 실망이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에서 그 실망한 얼굴(Disappointed Face)을 바라봅시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눅 22:31-32)

확신에 찬 베드로의 대답도 당신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눅 22:33)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를 타이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눅 22:34)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다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 사복음서를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던 순간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말합니다(막 14:71). 그 내용에 대해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봅시다.

한 시간쯤 지난 뒤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자는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눅 22:59-60)

이때쯤 되어 예수님을 묶어 대제사장의 집에 데리고 간 사람들은 그분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을 때 베드로는 모른 채하며 푸른 밤하늘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겐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눅 22:61-62)

저는 그 순간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얼굴에서 실망한 표정을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

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은 차가운 칼날로 찢리는 듯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실망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 쓸쓸하고 황폐한 곳으로 몸을 던진 후 몹시 울었습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이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더욱더 실망시킨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몹시 아프게 찢었던 실망의 사건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군중이 등불과 칼과 몽둥이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 봅시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 26:55-56)

이 문단의 끝에 적힌 마지막 몇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침울한 단어들입니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마 26:56).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구원자 예수님께서 놀라지는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한 사람이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어둠의 시간에 꼬리를 감추고 사라졌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도망간 제자들 모두에게 충성스럽고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충성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했는지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그분을 따르는 일로 인해

힘들고 모진 고난을 많이 당할 것임을 깨달은 바로 그날, 사실 그분은 그들의 사랑과 충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침몰하는 배를 미리 알고 그 배를 떠나가는 쥐들처럼 그들은 매정하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요 6:67)

자신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위의 질문이 담긴 예수님의 음성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저녁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산 문 앞에 여덟 명의 제자를 남겨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가요! 성정은 동산의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후 일어났던 일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둠 속으로 달아날 때 피로 물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과연 이 사건 이전에 그분의 고귀한 얼굴에 이처럼 실망이 가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혼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끌려 나와 혼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폭도들을 혼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빌라도의 심판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또 혼자 서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아홉 가닥으로 된 채찍을 바라보며 비참하게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그 군인들의 잔인한 주먹을 맞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보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혼자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 저는 성경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매우 기쁩니다! 이제 곧 보여 드릴 내용을 성령님께서 예비해 주신 데 대해 저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화가 난 무리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로 야유를 예수님께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뻗어진 로마 군인들의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관에 찢린 이마의 상처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흐르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십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고통이 무자비한 불화살이 되어 예수님의 여윈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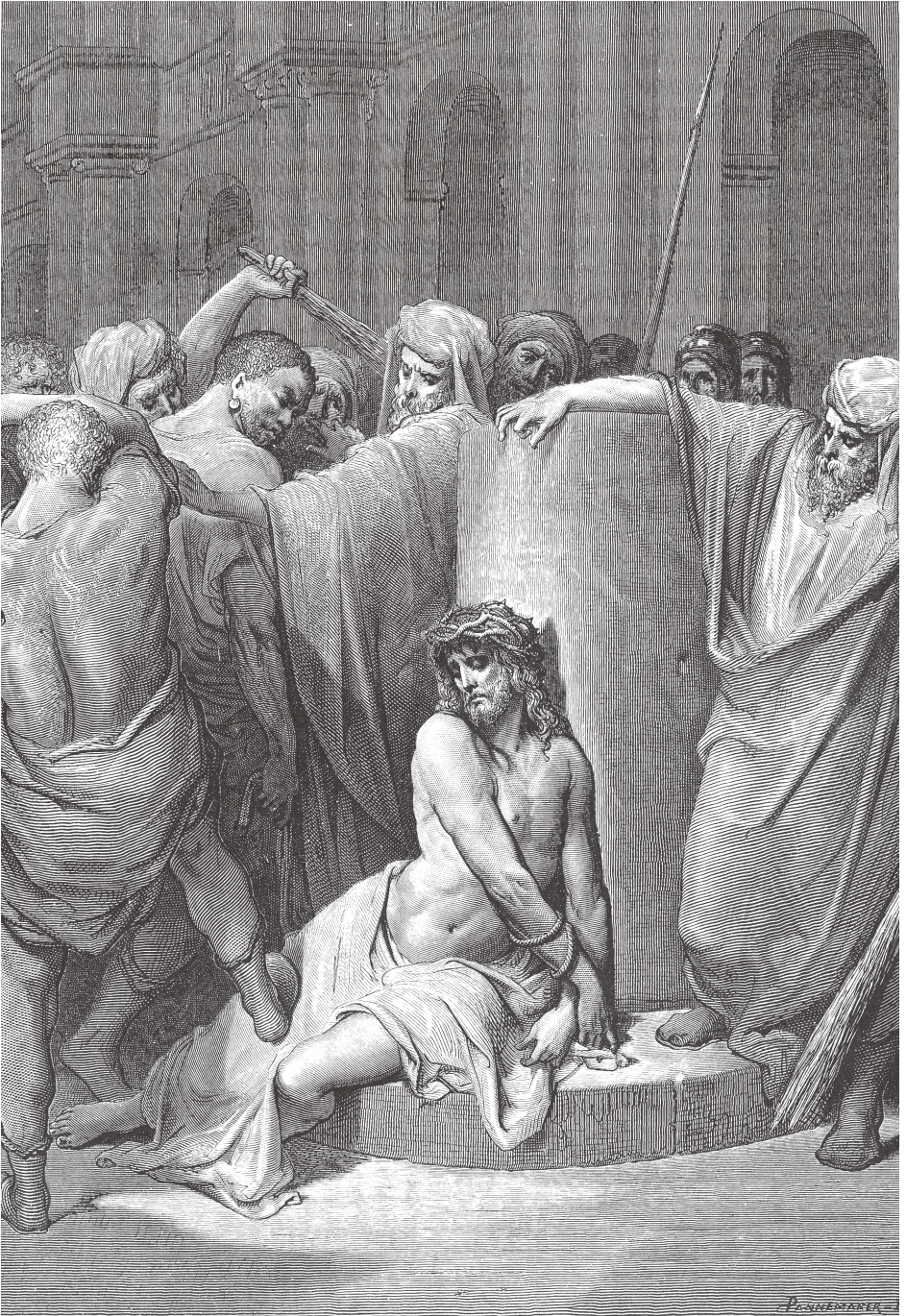
단지 몇 명이라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렇게 침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한 명의 제자라도 그 침울한 임종의 시간에 남아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입안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혀를 움직이며 눈을 감고 계십니다. 난폭한 군중들의 고함 소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귀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눈을 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누런 하늘에서부터 십자가 밑까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침과 피로 가득한 눈을 돌려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차츰, 두 명의 친한 얼굴의 형상이 분명히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요 19:26)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뒤쪽에 서 있는 그녀를 이미 보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 다른 얼굴이 보이는군요. 요한! 그래요, 그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곧 십자가에 처형되리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되돌아왔습니다! 살인의 광기에 빠져 있는 폭도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한은 되돌아왔습니다! 서쪽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기 전에 죽게 될지 모른다



채찍을 맞는 예수님

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되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저는 예수님의 피나는 얼굴에 배어 있던 실망의 빛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저... 저것은 예수님의 미소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살면서 웃는 그 미소 때문에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 언저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신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과 그 외의 모든 일이 요한이 되돌아온 사실로 인해 조금이나마 쉬워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다가 요한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에 큰 실망이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된 후 성경이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부른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되돌아온 일이 우리 주님께는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해 후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계 1:9)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에게해(Aegean Sea)에 있는 밧모 섬으로 추방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주목해 봅시다. 그는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달아났던 제자 요한..., 하지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가 아닌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은 지금까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아, 나의

행동은 얼마나 비겁한가! 그들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분은 나의 친구이시고 나는 그분의 친구이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지금 달려가야겠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밧모 섬으로 추방되어 혼자 남아 있던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외로이 나이 들어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다의 푸른빛을 바라봅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는 이 바위섬에서 외로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고향의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잠깐만요! 섬에 외롭게 추방되어 있는 요한은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이었었습니다! 그 소리는 트럼펫처럼 명확하고 뚜렷했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돌아서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그는 이 섬에 자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밧모 섬은 아주 작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에 섬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순간까지 혼자였습니다. 요한은 한껏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 봅시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발까지 내려 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계 1:12-13)

우와... 와!!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요한은 몹시 감격하여 발끝에서부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 봅시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계 1:17-18)

우와... 와!! 당신은 그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짧고 힘든 숨을 내쉬며 발을 끌며오는 장면을 봅니다(그때 그는 아흔 살 된 노인입니다). 눈물이 요한의 앞을 가립니다. 그 황홀한 장면 속에서 노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단지 그분이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점만을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목을 두 팔로 감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뵈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이곳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흑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 말을 들어라. 나도 혼자일 때가 있었다. 나도 외로이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그곳에 매달려 고통을 당했고 홀로 피를 흘렸다. 요한아, 그러나 너는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네가 내게 돌아온 일이 내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너는 결코 몰랐을 것이다. 그렇지 요한아? 너는 내게 돌아왔다! 이제 네가 이 섬에서 혼자가 되었구나. 너는 내게 돌아온 유일한 제자였다. 그렇지 요한아? 이제 내가 네게 와서 너와 함께하겠노라!”

자,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러한 일이 당신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 죽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실망한 얼굴은 기쁜 얼굴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을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 점점 냉담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며 그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The Dazzling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4장

눈부신 얼굴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므로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 17:1-8)

조금 더 완전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기 위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 박사의 설명을 함께 읽어 봅시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 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그들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므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며 두려워하였는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며 그 음성이 사라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눅 9:28-36)

다음 말씀을 주의하여 다시 봅시다.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눅 9:29)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마 17:2)

해와 동굴 사이의 대화를 담은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동굴이 말했습니다. “해야, 너는 반드시 내 어둠을 보아야만 한다!”

해가 말했습니다. “어둠이라고? 동굴아, 어둠이 뭐니?”

“응, 여기 내려와서 보면 돼.”라고 동굴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해는 내려와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해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동굴아, 너의 어둠이란 것이 어디 있니?”

당신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4:3-4)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잠 4:19)

그러므로 구원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은 다음과 같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것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 걸려 넘어지듯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 (사 59:9-10)

저도 한때 어둠 속에 있었으며 그때에는 죄와 사탄이 저를 눈멀게 하여 불타는 지옥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의 해이신 하나님(말 4:2)께서 칠혹 같은 어둠으로 덮인 저의 동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분이 들어오자 더 이상 어둠은 없었습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저는 복음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의 쇠망치(렘 23:29)가 제 혼의 어둠을 계속해서 내리쳤으며, 어느 날 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소망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저를 꺼내 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렸으며(롬 10:13) 그분은 친히 약속하신 대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날 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지닌 영적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변화산의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날 변화산의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신 얼굴(Dazzling Face)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경험이었을까요?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영혼의 내적 영광이 모두 그분의 얼굴에 순식간에 표현되었고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때는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눈부신 얼굴을 세 가지 관점, 즉 그 배경과 의미와 광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1. 눈부신 얼굴의 배경

어떤 그림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는 종종 그 그림을 테두리가 있는 액자에 넣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신 얼굴을 배경이라는 틀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두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위험으로 가득 찬 배경 속에서 이 그림을 바라봅시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처음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겨우 두 살이었을 때에도 사악한 헤롯 왕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 2:1-18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그분의 생명은 첫날부터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에게 일격을 가한 후 곧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후,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눅 4:28-30)

참으로 놀라운 환영회이지요? 아마도 이 구절은 젊은 목회자를 실망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의 첫 장에 실리면 딱 좋을 만한 구절입니다. “젊은 목사가 처음 설교를 마친 후에, 그를 벼랑에 데려가 밀어 버려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 예수님의 생명은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와 계획을 꾸미는 장면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종교계를 맹렬히 강타하던 세 번째 해에 이 모든 일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갈 길은 오직 한 길뿐이고 그 길은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악독한 원수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마 16:21)

이 말씀을 하신 지 몇새 후에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다 가울 비극에 대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십자가로 가서 죄인들의 손에 배반당하고, 고통당하며 피 흘리고 죽고, 성경 말씀대로 죄가 되어(고후 5:21) 당신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죽음의 독침을 맛보며 지옥의 고통으로 공격당하고, 죽음의 문에 치여서 몸이 찢어지고, 자신의 거룩한 혼으로 죄의 삯을 지불하리라고 아는 상태에서 변화산의 정상에 올라섰으며, 바로 그때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다가올 슬픔과 모든 수치와 어려움이라는 구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것처럼 눈부신 얼굴로 계실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의 답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멀리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히셨느니라.

십자가 너머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절망의 구도 속에서도 눈부신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승리의 편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로 가려진 구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신 얼굴을 다시 한번 잘 바라봅시다. 그 눈부신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악의 권세는 강합니다. 그러나 의의 왕국은 더욱 강합니다! 어둠의 왕국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빛의 왕국은 더욱 강력합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너머에 주 예수님을 위해 예비된 기쁨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사악한 세상 너머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기록한 저 ‘위험한 때’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절망의 구름이 지금만큼 낮고 짙게 깔린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육식성 괴물이 모든 땅과 나라를 먹으려고 달려들 듯, 한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이 땅 위에 팽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러시아는 제네바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열리는 ‘평화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사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구름은 많은 사람을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만들고 있고, 이 불쌍하고 위태로운 세상을 더욱더 어둡고 불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성도들의 피로 물든 로마 카톨릭교회와 그 밖의 다른 조직화된 전 세계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을 없애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세력이 우리를 반대하는 듯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이여,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어둠의 구도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여,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해변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다음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사 2:2-4)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

짓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 주위의 띠로 삼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 11:4-5, 9)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그 눈부신 얼굴이 위험과 어둠의 배경 속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비극으로 만연한 이 세상,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 눈부신 얼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소망의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위험으로 가득한 그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둘째, 이제 우리는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 배경 속에서 그분의 빛나고 눈부신 얼굴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서 변화한 사건에 대하여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눅 9:29). 그분의 용모가 바뀐 때는 바로 그분이 천국과 교통하고 계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이 완성해야 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제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했다면, 당신과 저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눈부신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번개처럼 눈부신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아래로 기뻐하며 나아가게 되며 거룩한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얼굴도 빛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눈부신 얼굴을 두 가지 배경 혹은 구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얼굴이 갖는 의미를 봅시다.

II. 눈부신 얼굴의 의미

눈부신 얼굴의 의미 또한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먼저 저는 그분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 얼굴의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변화산 위에서 우리는 강하고 위엄이 있으며 감동적인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광경에 압도당해 결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자신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 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벧후 1:16-18)

지금 저는 그 거룩한 산 위에서의 장엄한 사건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틀림없이 십자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는 영광의 해변으로부터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변화산 위에서 만나셨습니다. 이때 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
나 (눅 9:30-31)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당신은 ‘모든 점’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경험하지 않은 시험이나 유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마치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육체적인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죽고 싶어요. 죽음의 천사가 싸늘하고 앙상한 손으로 킁킁한 죽음의 문으로 나를 데려갈 그때를 기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그때를 생각만 해도 흥분돼요! 나는 어서 빨리 죽고 싶어요!”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음….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고후 5:8).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시 23:4)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죽음 자체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죽지 않고 휴거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지 알지 못하고, 또 언제 죽음의 천사를 만나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늘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

힘이요 유혹입니다. 우리는 다 휴거를 받아 죽음을 피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은 괴롭고 외로우며, 진저리나도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으며, 십자가를 건디어 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로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 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 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와 맨 끝 바다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 주시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내가 너에게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으나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니 (신 34:1-5)

모세가 죽을 때는 어떠한 괴로움이나 외로움, 고통이나 격렬함이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스 산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오랫동안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영원한 팔로 그를 안으시고 그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맛보셔야 했던 죽음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엘리야가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났는지 살펴봅시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네 앞에서 데

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당신 영의 두 뿔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네 앞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네게 이루어지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왕하 2:9-11)

엘리야의 경우에도 어떠한 괴로움이나 외로움, 고통이나 격렬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 자체를 맞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불 병거에 올라타 회오리바람 속으로 들어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생각들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죄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음을 맞보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려는 듯, 하늘로부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겪게 될 끔찍한 죽음에 관하여 말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쳐다보셨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어떠한 괴로움도 없었으며, 엘리야는 심지어 죽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아무 때나 산 위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팔에 안겨 곧바로 잠들 수 있었다면, 또 만일 엘리야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불 병거를 타고 영광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분명히 티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혹독한 저주와 죽음의 독침에 찔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단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셨다면, 그분은 자신이 가지셨던 영광 속으로 다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요 17:5)!

둘째, 그분의 영화로운 인성의 아름다움 속에서 발견되는 눈부신 얼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으로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위대하고도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일, 자신을 괴롭히던 시험들을 극복하신 일,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일,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일 등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무엇이랴 말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1.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일

예수님께서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건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눅 1:35)

2. 자신을 괴롭히던 시험들을 극복하신 일

예수님께서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사십 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나매 그 뒤에 그분께서 주리시니라... 예수님께서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분의 명성이 두루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졌고 (눅 4:1-2, 14)

3.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신 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요 3:31, 34)

4.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 9:12-14)

5.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0-11)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님 안에서 살며 그분 안에서 행동하고 걸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 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변화산 위의 영광 가운데 서 계셨고, 바로 그때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이는 바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인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은 눈부실 정도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재림과 연관시키셨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얼굴이 빛나게 될 변화산으로 올라가기 몇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6:28)

바로 다음 절은 마태복음 17장 1절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크리스천 친구여, 당신은 변화산 위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눈부신 얼굴이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될 변화임을 알고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웹스터 사전」은 ‘변화하다’(transfigure)라는 단어를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의 형태나 모습을 바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변화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그분의 얼굴 모습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웹스터 사전」은 ‘바뀌다’(alter)라는 단어가 ‘변경되거나 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사셨고 그 안에서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배우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는 사람들이며(고전 6:19),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눅 11:13; 롬 15:13, 19; 고전 2:4; 살전 1:5 등을 찾아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조만간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것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고전 15:51-52)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크리스천의 삶에는 변화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를 미리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눈부신 얼굴을 그 배경과 의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얼굴을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III. 빛나는 얼굴의 영광

저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극적인 순간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는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곧 ‘반응’과 ‘책망’입니다.

1. 반응

예수님의 눈부신 얼굴을 본 베드로는 몹시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랑했고, 그래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위에 장막을 짓고 예수님의 눈부신 얼굴과 함께 계속해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일이 있는 지 몇 년 후에 베드로는 그 산 위에서 겪은 경험과 그 눈부신 얼굴을 본 일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광경에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는 비록 그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에 관해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그 눈부신 얼굴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누가 역시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에 대해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눈부신 얼굴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의 길에서 그 눈부신 얼굴을 보았고 그 일로 인해 눈이 멀었습니다! 요한은 밧모 섬에서 그 눈부신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에 압도당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눈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까?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2. 책망

그 산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다시 한번 살

펴봅시다.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눅 9:29-31)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몹시 피곤하여 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광경을 거의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책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게으름을 피우고 졸고 있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롬 13:1)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느니라. (사 60:1)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영광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을 피우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즐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일처럼 책망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집에서 충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 명의 잠 많은 제자들의 예를 통해 당신 자신을 돌이켜 보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졸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신은 더욱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로써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크리스천이라면, 저는 그의 환한 얼굴을 통해 그 증거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시내 산 정상에 오른 후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 두 증언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출 34:29)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만 한다면, 그분의 얼굴은 우리의 온몸이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잠 27:17)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분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경건한 여인 한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렇게 하므로 브닌나가 그렇게 그녀를 격노하게 하였고 그런 까닭으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나...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네게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었으며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삼상 1:7, 10, 17-18)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주님께 기도했고 그녀의 얼굴은 변화되

었습니다! 슬픈 얼굴에서 기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책망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충분히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당신의 얼굴은 침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얼굴이 빛나게 꾸밀 수는 없습니다. 빛나는 얼굴 자체는 화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빛나는 얼굴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을 가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The Deified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5장

신성의 얼굴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는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일곱 번째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 케이프커내버럴 기지에서 이륙한 후 1분 30초 만에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일곱 명의 우주 비행사의 생명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국영 방송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곱 명의 용감한 영웅들은 이 땅에서의 얼굴을 하늘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얼굴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구원받은 우주 비행사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 자체로도 힘을 주는 말이었으며, 매우 친절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하나님의 얼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7명의 우주 비행사

면서 도대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중얼거린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접어 두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무엇을 그럴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안개가 자욱이 떠 있는 곳에서 흐릿하게 나타나는 어떤 신비하고도 희미한 광채 같은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얼굴같이 윤곽이 뚜렷하며 다른 얼굴과 확실히 구분되는 그러한 얼굴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 말씀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올바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제가 믿는 바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곧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결코 다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신성의 얼굴(Deified Face)입니다. 이제 한 하나님의 세 인격에 대하여 공부함으로 이 진리를 살펴봅시다.

I.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골 1:15)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딤후 1:17)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며, 인내와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히 11:27).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영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 4:23-24)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뒤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들이 영을 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한 사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고하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

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 24:33-39)

예수님께서서는 그 놀란 사람들에게 영은 살과 뼈, 즉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얼굴도 없습니다.

II.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호칭을 통해 우리는 달콤한 위로자 성령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 14:16-17)

이 세상에 속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육체의 눈으로 성령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히 11:1).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얼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 분이 왕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고전 8:6)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
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엡 4:4-6)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딤후 2:4-5)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세 개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거기에는 세 하나님
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신경 써서 조사해 보면 의외로 단
순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
도의 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다음으로 인도합니다.

III. 아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지닌 유일한 몸이 예수님의 몸뿐임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
들을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골 2:8-9)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딤후 3:16)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 14)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유심히 바라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곧 신성의 얼굴입니다.

크리스천이여, 당신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아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

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요 14:5-9)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뵈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아라. 내 얼굴이 보이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네가 나를 보았다면 너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는 왜 아버지를 보려고 천국을 헤매느냐?”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읽었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형상’(image)이 ‘닮음’(likeness)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둘 다를 미워하였느니라. (요 15:24)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있을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보았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일은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

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유일한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크리스천이시여, 천국에 올라가 성령님을 보려고 이곳저곳 다니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님을 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육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결국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갈 4:6)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롬 8:9)

이는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빌 1:19)

[구약 시대 대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벧전 1:11)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면 곧 성령님의 얼굴을 본 셈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말구유에 누운 예수님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들은 실제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얼굴은 유일한 신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두 살의 어린 예수님께서 무궁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당시 지식충이던 박사들을 놀라게 하셨을 때 그들은 신성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예수님의 얼굴 역시 유일한 신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진흙투성이인 요르단 강에서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서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멈추어 어떤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의 주인공은 강가에서 자라나는 갈대를 헤치며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요한아,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 얼굴을 자세히 본 뒤 침례자 요한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얼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반사된 그 얼굴은 유일한 신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흙먼지 길을 걸어가실 때, 군중들이 보았던 얼굴 역시 신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병든 자를 고쳐 주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얼굴 역시 신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주먹과 피에 끓주린 군중의 따가운 시선과 야유를 맛보신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관으로부터 흘러나온 피로 얼룩진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던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을 내어 주신 후에 맥박이 멈춘 가슴 위에 매달려 있던 그 얼굴은 신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2시간이 지난 뒤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빛나던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실 그 얼굴은 유일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The Dauntless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6장

담대한 얼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까닭으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사 50:7)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눅 9:51-53)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치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정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장소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들의 앞길에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자신들의 얼굴을 굳게 세운 채, 어떤 일이 있어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 미국에 살았던 개척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19세기에 서부 황무지의 미개척 지역을 향해 자신들의 얼굴을 굳게 고정시킨 채, 거주하던 동부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콜럼버스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지도에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거칠고도 거대한 대양 너머로 자신의 얼굴을 굳게 고정시켰습니다. 저는 저드슨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미얀마(버마)라는 이방의 땅을 향해 가리라는 결심을 굳힌 채 담대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들어 보지도 못한 극도의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아프리카의 정글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단호하게 고정시킨 리빙스톤을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억압과 어둠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아직 자유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 빛이 없던 때, 동녘을 향해 얼굴을 확고히 고정시킨 워싱턴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저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이곳저곳이 피로 물든 때, 필리핀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고정시킨 맥아더 장군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그는 확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의 어느 얼굴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려고 결심하던 때의 그 담대한 얼굴(Dauntless Face)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몸과 혼을 죄로 인한 희생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까닭으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사 50:7)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눅 9:51)

십자가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담대함이 어

떤 것인지 잘 살펴봅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귀나 또는 지옥의 모든 악한 무리들도 결코 갈보리로 향하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얼굴 속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것이 들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는 기본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의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확고히 결심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확정된 셈입니다. 잠시 이 문제를 접어 두고 그분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마 16:21)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처형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눅 9:31).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다시 한번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 17:22-23)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과 누가복음 9장의 시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다음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눅 9:51)

이 단락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셋째 해의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사역에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이봐요, 레이시 형제님,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십자가를 향해 굳게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오, 아닙니다! 셀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 창조의 모루로부터 별들이 처음 빛을 발하기 전에, 태양이 맨 처음 빛을 내기도 전에, 저 바다의 파도들이 모래사장에서 처음 흰 거품으로 부서지기도 전에, 숲속 나무들 꼭대기 속에서 바람이 소곤대기 시작하기도 전에 갈보리를 향해 담대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조의 여명이 밝아 오기도 전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복된 얼굴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 담대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갈보리의 피로 물든 언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셨습니다!(계 13:8)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어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언제 알게 되었을까?”라는 점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마리아의 가슴에 안겨 있던 그 작은아기는 하나님의 지성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고 말합니다(눅 2:52). 예수님께서서는 아기 때부터 어린아이로 자랄 때까지 줄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눅 2:40)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였을 때조차도 지혜로 충만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의 지혜가 어머니 마리아와 의붓아버지 요셉과 유대인 학교의 랍비들로부터 배우는 일을 통해 자라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식과 지혜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단연 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이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부분을 읽음으로써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총 150편의 시편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읽습니다. 많은 시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 22:1)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시 22:6)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시 22:14)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 (시 22:16)

오 나의 하나님이며,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므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시 42:6-7)

[겔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 118:5)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대에서]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오? (시 118:6)

[제자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시고]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 118:8-9)

[십자가 위에서]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멀하
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멀
하리로다.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꺼졌나니 내가 **주**
의 이름으로 그들을 멀하리로다. (시 118:10-12)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사탄을 향해] 내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시 118:13)

[부활하시면서]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웅맹스럽게 행하시느도
다. (시 118:16)

[승천하시면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시 118:19-20)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그분이 십
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게 된 때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가르쳐 주는 곳을 찾아봅시다.

어릴 적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사오며(I am afflicted and
ready to die from my youth up)¹ 주의 공포들을 겪을 때에 내가 마음이 혼란하
였나이다. (시 88:15)

1. 영어 youth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등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저자는 youth가 어린이에서 젊은이
로 바뀌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관습을 인용하고 있음.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을 안겨 주는 일이 그분에게 닥쳐왔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어느 날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청년이 되면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청년이 되는 때부터 “죽기를 각오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난 아들, 즉 처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누가 복음 2장에서 밝혀줍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서는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는 후에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눅 2:39-40)

성경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쓸 때 그분의 나이가 두 살 정도였음을 보여 줍니다(마 2:1-23).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뒤에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편 그분의 양친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분께서 열두 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기도 하시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그들은 그분을 보고



성전에서 박사들과 이야기하는 예수님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만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눅 2:41-52)

유대인들의 오래된 풍습에 따르면 남자가 열두 살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로 여겨지지 않고 청년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청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예식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열두 살입니다. 누구든지 열한 살까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열두 살이 되어야 비로소 청년이 됩니다. 시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사오며 주의 공포들을 겪을 때에 내가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시 88:15)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앉아서 유월절 어린양을 죽이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랍비 한 명이 출애굽기, 즉 이집트 탈출기에 기록된 유월절 이야기를 읽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그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자 가족들은 짐을 꾸린 후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행자들의 행렬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행렬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무언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돌아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유대 땅의 태양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성전의 둥근 지붕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석처럼 예수님을 끌어들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집

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또는 친척 중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열두 살 된 청년 예수님께서서는 행렬을 빠져나와 성전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성전으로 이끌고 간 어떤 신비한 힘을 따라 성전의 거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다다랐을 때 한 음성이 그분께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서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이고 요셉은 단지 의붓아버지였다는 것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음과 같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아, 이제 너는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제 나는 네가 하늘을 떠나 땅에 내려온 목적을 설명해 주려 한다.”

“그러세요, 아버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빛나는 눈을 가진 청년 예수님께서서는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아들이아, 유월절 어린양을 너는 기억하느냐?”

“네, 아버지.”

“사람들이 반드시 어린양을 죽여야 하고 그 피를 각 가정의 문에 십자가 형태로 뿌려야 함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 어린양의 피가 문 위에 뿌려졌을 때에만 사망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예, 아버지.”

“내 아들이아, 네가 바로 그 어린양이다. 반드시 흘려야 할 피는 바로 네 피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짧은 시간에 십자가와 피, 희생 및 대속의 죽음, 그리고 구원을 모르는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될 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동안, 그 젊고 수려한 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저는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영원무궁한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되셨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자신의

영광을 기억하셨습니다(요 17:5).

단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사오며 주의 공포들을 겪을 때
에 내가 마음이 혼란하였나이다. (시 88:15)

하나님께서서는 언제 자신의 아들과 만나 이 모든 일을 드러내실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살 된 아들을 여행자들 속에서 잃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 자체가 제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마리아에 대해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줍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마리아를 깊이 숭배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었고 살면서도 죄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혼과 마음을 다해 그녀를 신뢰합니다.

저 역시 제 주님의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마리아가 죄가 없다거나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 열두 살 난 아들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무책임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 정성으로 마리아를 떠받들고 있는 로마 카톨릭 신도들에 관하여는, 마리아가 그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는 일보다 못할진대 그들 신앙의 기초인 마리아는 참으로 든든하지 못한 기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마리아의 잘못은 명백하게 그녀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그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가련하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 동안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장소인 하나님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깊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박사들은 입을 벌리고 열두 살 된 젊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지혜를 보고 놀라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사실, 놀라움에 잠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나는 너를 찾느라 걱정하다가 병이 날 지경이었던다.”

당신은 마리아가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만나 그분의 신분과 앞으로 이루실 사명을 보여 주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였을 때부터 마리아는 언제나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생각해 왔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상의 것에 무지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첫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이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아셨으며, 마리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그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십니까? 마땅히 제가 있어야 할 곳을 모든 백성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함을 모르십니까?”

누가복음 2장 50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훗날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젊은 구원자께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가리켜

‘네 아버지’라 부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여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감하는 동안, 아들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이해하셨습니다. 청년이 된 예수님께서서는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담대한 얼굴을 부싷돌처럼 십자가를 향해 확고히 고정하셨으며,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죽을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 18년 동안 이어진 예수님의 삶에 대해 아무 기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서른 살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눅 3:23을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께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오가며 병든 자를 고치고 혼을 구원하면서 “아무에게도 이를 말하지 말라.” 하고 당부하신 장면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날 불가피한 갈등들을 재촉할 온갖 소문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갈릴리의 작은 언덕에 피신해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연한 의지의 담대한 얼굴로 불신과 편견,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원수들의 요새를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그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여 자신을 뺨박하도록 내버려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고의로 상황을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

저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저를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길을 걸어가셨고,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혼과 몸을 짓밟을 폭력 집단의 실체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종교적 광신 집단이 자신의 자취를 뒤쫓고 뒤꿈치를 바라보며 짓어대고 혐오스러운 송곳니를 보이며 으르렁대고 이를 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갈 길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 앞에 놓인 험난한 길을 명확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끝에는 십자가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떨리는 몸이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 역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나?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담대한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빛내기를 멈추지 않는 태양처럼, 바다로 흘러가는 길에 굽이진 수로나 바위, 모래 언덕이 가로막아도 쉬지 않고 흐르는 강한 강물처럼, 멈출 기미 없이 포효하며 무섭게 쏟아지는 거대한 산사태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담대한 얼굴을 부싯돌처럼 확고하게 고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담대한 얼굴에는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으로 인한 특별한 빛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예수님의 담대한 얼굴 속에서 그분의 용기를 봅니다.

II. 용기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하시고 열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면서 두려워하므로 그분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막 10:32-34)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당시 어떤 심경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명 깊은 광경입니까? 겁내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기죽지 않은 모습으로 앞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불굴의 결의를 품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곧장 전진하셨습니다. 반면에 소심한 제자들은 주저하고 우왕좌왕하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토록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기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9:62)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길의 마지막 발걸음을 떼기 위해, 갈보리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기 위해, 갈보리의 고통을 최후의 순간까지 견디기 위해, 그리고 고난의 잔에 남은 양금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시기 위해 담대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저의 구원자 예수님께서서는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줄곧 담대한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용기를 지니셔야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셨을 때 폭풍 속에서 출렁거리는 배 안에서 잠이 드실 정도로 피곤해하신 일은 결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치셔서 사마리아 수가 성의 우물가에 앉으신 모습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갈보리로 가는 길에 십자가 무게에 눌러 쓰러지시고, 이로 인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상황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폭풍우와 싸움, 사탄의 방해를 마주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 주신 이 놀라운 용기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씀 속에서 복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나는 부싯돌처럼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겠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귀중한 점은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 주님의 담대한 의지의 근원이 되는 그분의 사랑, 즉 당신과 저 같은 죄인들을 향한 위대하고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요 15:1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을 때, 이는 반역자들,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 원망을 품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부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 사악한 자들,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롬 5:6-9)

야고보서 4장 4절은 누구든지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연하게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몹시 사랑하셨기에 영광스러운 왕복을 벗으시고, 별들로 장식된 왕관을 내려놓으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찬양하는 천사들로부터 등을 돌리시고 갈보리의 잔인한 십자가를 향해 확고하고 담대한 얼굴을 돌려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오직 그분의 원수들만이 고통이나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일 4:10)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끝없는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혜를 보여 주기 위해 그 내용이 무궁무진하며 아주 작고 미미한 부분까지도 전혀 오류가 없는 책, 즉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닌 장엄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여 주기 위해 그분은 감히 우리

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빛나는 천사들과 그룹들, 스랍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셨을 때, 그 일은 오직 그분의 독생자의 인성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롬 8:39)

로마서 5장 5-10절에 의하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돌아가셨을 때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로 향하는 직선 코스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에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 저를 몹시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감동적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일보다 제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제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믿지 않았을 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제게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모든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옥 불 호수에서 영원히 불타야만 할 바로 그때에 그분은 제가 천국에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용기의 불꽃을 지핀 동력은 바로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십자가에서 죽

기 위해 담대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지와 용기 외에도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III. 침착함

저는 구원자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며 태연하고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놀라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서두르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침착하게 행동하시는 생생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땅에 계십니다. 그분은 58절에서 자신이 스스로 계시는 분(I AM), 곧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요 8:58-59)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그분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므로 (요 10:31)

자, 이제 예수님께서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려 하실 때, 그리고 피에 굶주린 폭도들을 다시 만나야만 했을 때 얼마나 태연하셨는지 살펴봅시다.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니 (요 11:7)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를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음을 몰랐기에 입을 벌린 채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거기로 다시 가시나이까? 하매 (요 11:8)

열두 제자는 겁이 났습니다. 유대로 되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그들의 가슴은 쿵쥔거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태연하고 사려 깊고 위엄 있게 대답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낮에 걸으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나 밤에 걸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요 11:9-10)

도대체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는 단순히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빛 속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그 잔인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완전히 알고 계셨지만, 유대 땅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돌리시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한 책에서, 전기문을 읽을 때면 언제나 주인공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앞에 놓고 읽는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 방식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생생하게 그 사람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대한 얼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얼굴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구원자의 얼굴입니다. 골고다의 희생 제단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확고히 고정된 그분의 담대한 얼굴, 그리고 사람과 짐승들과 마귀들이 방해할 수 없는 구원자의 얼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 죄를 감당하고 지옥 무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

노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스스로 확고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한 용기와 완벽한 태연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습니다!

아, 복되고 사랑이 충만한 얼굴이여! 아, 사명을 맡고서 용감하고 태연한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의 담대한 얼굴이여!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빛 속에서 행한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이 책을 읽고 있는 크리스천 독자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앞길에 장애물이 닥쳐온다 해도 당신은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당신이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의미 없는 일로 당신을 끌어들이는 이 세상을 향해 “당신들은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함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만큼 당신은 사명감이 투철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가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충성 맹세하기를 꺼립니다. 이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일을 마치 이웃이나 직장 동료, 혹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으로부터 멀리받는 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을 휴식과 여가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십일조를 바치고 헌금하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일 년 예산의 일부, 즉 새 자동차나 캠핑카, 보트, 오토바이, 스포츠 경기의 시즌 입장권, 사치스러운 휴가, 그리고 대형 스테레오 TV 등을 사는 항목 중 하나로 여길 뿐입니다.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가치를 지니기를 원하면서도 그 값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족과 편의, 그리고 안락함을 바랍니다. 만일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다면, 단지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 내기 위해 십자

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작은 고통을 견디거나 희생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로 가시는 동안 날카로운 돌맹이가 날아드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 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짐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확고하고 담대한 얼굴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대가가 무엇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생 여정을 헤쳐나가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자신 있게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The Dutiful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7장

의무에 충실한 얼굴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 26:38-39)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은 갈보리에서의 수난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려운 잔의 그림자 아래에서 번민하시며, 자그마치 세 번이나 위와 같이 기도하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세 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다시 언급하는 일을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대신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들어가기 전, 기드론 시내에서 드리신 기도를 보여 주는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모두 겟세마네의

고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의 설명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다른 두 복음서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서 땅바닥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옵소서, 하시고는 (막 14:35-36)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달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눅 22:41-44)

이 잔의 그림자가 험악하게 덮쳐 오며 위협하듯 무시무시하게 보일 때,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짓누르는 무게를 점점 더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한편 마태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증언합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분은 기도를 시작하시며 먼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잔의 무게는 기도가 이어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쓰러지셨고, 아마 그때 두 손이나 팔꿈치가 흙먼지 위에 놓였을 것입니다. 외과 의사 누가는 고통이 더해질수록 피땀이 땀구멍을 통해 솟구쳤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무거운 잔이 예수님의 거룩한 혼을 누르자 마침내 그분은 겹세마네의 거친 땅 위에서 엎드러지셨으며, 그때 피로 적셔진 얼굴은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흠먼지 속에 파묻힌 그 귀중한 얼굴을 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의 얼굴, 즉 의무에 충실하신 얼굴(Dutiful Face)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딤후 1:15)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다음 날 정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떨리는 입술에 두실 그 무서운 잔을 마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고통스러운 잔 앞에서 거룩한 입술로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

이와 같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겟세마네에서 의무에 충실한 얼굴을 땅에 대고 씨름하시며, 독이 든 잔의 마지막 앙금까지 마시는 일 외에는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만 할 당신과 나의 혼을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의무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 피땀이 그분의 의무에 충실한 얼굴에 흘러내릴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눅 22:42).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이 고독한 경험은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두운 겟세마네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신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므로(딤후 3:16), 우리는 우리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사건으로부터 더욱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겔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히 2:10)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의 일부를 그 잔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난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해지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본모습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더욱 훌륭한 자녀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시여,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공포에 굴복하게 만들 만큼 힘든 시험을 당하거나 무시무시한 시련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할지 열망하다가 애통함이나 고난의 충격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어두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겪으신 그 비밀스러운 고난에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닥쳐오는 가슴 아픈 경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무시무시한 고난들을 묵상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신약 교회들에게 보내는 진리의 말씀들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통스럽고 슬픈 고난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어떤 큰 뜻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능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지금 아니면 훗날 여행할 모든 이들은

겻세마네 동산의 문을 통과해야 하네.
 어둠 속에서 외로이 무릎 꿇고
 어떤 거센 절망과도 싸워야 하네.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네.
 오직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없으리.
 저 겻세마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겻세마네의 흙먼지 속에 파묻힌, 주님의 죄 없고 온유하며 의무에 충실한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고난의 시간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겻세마네의 흙먼지 속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의무에 충실한 얼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즉 죄의 공격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 그리고 생명의 희생 헌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I. 죄의 공격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기도를 되풀이하셨을까요? 그 ‘잔’이 그토록 두렵고 견디기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 학자들과 교수, 선생들과 설교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의 참된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잔을 앞에 놓고 울부짖으신 이유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채찍에 의한 육체적인 고통과 고뇌, 지독한 가시관, 그분의 얼굴을 때리던 군인들의 주먹, 손과 발에 박힌 잔인한

못,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고통스러운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이미 세상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저의 구원자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잔인한 순교를 맛보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나운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기기도 했고 고문대¹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화형에 처해지거나 톱으로 목이 잘리기도 했고 부글부글 끓는 기름통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순교자들보다 용기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서 겁쟁이같이 보이려고 우는 시늉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십 대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한 번의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지독한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을 찬양하며 죽을 것임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께서서 그들보다 용감하지 못하셨을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잔’ 때문에 울부짖으실 때 결코 십자가 처형에서 느끼게 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울부짖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잔을 앞에 놓고 그렇게 울부짖으셔야만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사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결과 그분이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 없게 되리라 생각하여 두려워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더더욱 엉터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구원자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보잘것없는 사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언제라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

1. 그 위에 사람을 눕히고 녹로 장치로 손발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관절을 어긋나게 하는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종교 재판에 쓰이던 잔혹한 형틀.

에서 사시며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때에도 사탄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 4:1-11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자신을 죽이게 될까 봐 두려워하셨다고 뻔뻔스럽게 말한다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앞에 놓고 그렇게 울부짖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 진실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을 가감 없이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분은 그 잔이 자신을 위협하는 몹시 혐오스럽고 불쾌한 대상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주하신 대상은 단지 그 잔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다음 날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실제로 그 잔의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날 밤 잠시 후, 무장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로 왔을 때 그분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 18:11)

따라서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그 잔에 담긴 내용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잔을 건넬 존재는 마귀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고문할 야비한 로마 병사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왜 고뇌하며 부르짖으셨는지 알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보통 잔으로 무엇을 합니까? 흐르는 액체를 잔에 담아 입술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잔을 비스듬히 기울여 내용물을 삼키면, 비로소 무언가를 마신 상

태가 됩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대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온 액체가 몸속으로 퍼져 흡수될 때 진정으로 ‘마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며 성경 말씀들을 비교해 봅시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on him) 지우셨도다.** (사 53:6)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 다른 아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그에게’(on him)라는 구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악은 모두 그분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살펴봅시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벧전 2:21, 2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위에 우리의 죄를 얹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속에 우리의 죄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속으로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음식과 물을 어떻게 몸속으로 섭취합니까? 그것들을 삼킴으로써 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죄가 나무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갔음을 보여 주는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은 온 인류의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떨리는 손은 죄로 가득 찬 잔을 내밀어, 자신의 독생자의 떨리는 입술 위에 그 잔을 두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자신의 존재 위에 그 잔을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쓰디쓴 한 방울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는 성경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 자체가 되셨다는 이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로 인해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담긴 그 잔을 마시고 실제로 죄가 되셨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둠이 짙은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울부짖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시 22:6)

예수님께서서는 그 잔을 마시고 문자 그대로 완전히 죄가 되셨으므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괴로워 몸부림치는 벌레, 즉 뱀 같은 벌레가 되셨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은 「지옥은 있다」²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단 한 번에 모두 그 벌레 속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두고 울부짖으신 이유를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죄 없고 흠 없으며 순결하고 완전한 그분께서 죄가 되셔야 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그분께서 죄가 되셔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서 죄의 어둠 속으로 빠지셔야 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

2.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엘 레이스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이신 그분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분께서 지옥의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셔야 했습니다. 한때 우주의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 계셨던 그분께서 벌레가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셔야 했습니다! 순결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마치 이제까지 존재한 사람들 중 가장 천하고 더럽고 부패하며 비참한 죄를 지은 존재처럼 아버지의 눈앞에서 멸시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겹세마네 바닥의 흙먼지 속에 자신의 귀중한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받을 육체적 고통 때문에 울부짖으시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라도 구원자 예수님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님의 어디에서도 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죄의 반대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열정으로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되어야만 한다는 무서운 생각은 예수님의 죄 없는 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뒤로하고 내려오셨고, 불 호수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 죄가 되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 육체의 나약함과 배고픔, 목마름과 고난을 겪으셨으며,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특히 후자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행한 모든 거짓말, 살인, 간음, 타락, 도둑질, 부정, 우상 숭배, 폭동, 그리고 사기 등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여기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날 밤 어두운 겹세마네

에서 갑작스레 그 일을 대면하셨을 때, 그 무게는 그분의 거룩한 혼을 압도했습니다! 심장을 찢는 고통과 혼을 찢는 고뇌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땅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온몸에 있는 땀구멍에서는 심장의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하늘 문을 열 다른 길이 있다면, 지옥으로부터 혼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동안 두 눈에 피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 사실이 붉고 뜨거운 검처럼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불살랐습니다. 지옥에 가게 될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흠먼지 바닥에서 의무에 충실한 얼굴을 들고, 눈물로 흐려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눅 22:42)

‘그러나’라는 말씀 속에는 당신과 나의 죽은 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단지 우리 죄를 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겠다는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 8:29)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내어 이것이 사실임을 보증하셨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 3:17)

갯세마네에서도 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잔을 마시는 순종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의무를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외의 다른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 10:9)

최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가장 높은 곳에서 죽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빌 2:5-8)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왕께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던 분이 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왕좌의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더 이상 상아 궁전의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고, 대신 지구의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천국의 부드러운 언어 대신 이 땅 죄인들의 저주와 욕설, 거짓말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계시던 분이 증오와 다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몸소 겪으셔야 했습니다.

과연 당신과 제가 지금보다 낮은 형체를 입고 독이 가득한 집으로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더럽고 때 묻은 돼지우리에 갇혀 돼지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커녕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순결함을 떠나 이 악하고 부정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사건은, 사람이 낮은 처지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영원한 분, 시간을 초월한 분이셨습니다. 친히 자발적으로 인간 육체의 한계를 받아들인 무한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자신의 운명을 내던진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으로 인해 부르짖으시며, 드디어 예수님께서서는 범 죄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여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도리나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막 버림받은 자로 취급당하시겠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벗어난 적 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려 했으나, 그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울부짖으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지 의무를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뒤따랐습니다. “...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께서서는 피와 땀과 먼지로 얼룩진, 의무에 충실한 얼굴로 오래된 올리

브나루 아래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잡으러 다가오는 폭도들의 횃불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배신의 쓰디쓴 입맞춤이 자신의 뺨에 닿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에 굶주린 군중이 곧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모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잠시 후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몇 시간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확고한 결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의무에 충실한 얼굴로 직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이제 성난 무리는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을 끌어내어 재판을 위해 갑바다로 압송하였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고자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잔인하게 못 박혀 매달리신 뒤 길고 긴 세 시간이 흐르자, 태양은 빛을 잃었고 하늘의 모든 별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땅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에 덮였습니다. 그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 하나가 십자가를 향해 잔 하나를 내렸고, 그 잔은 하나님의 아들의 떨리는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께 부어졌으며, 그분은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속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서는 문자 그대로 온전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발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몸에 응축되자, 그분은 고통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벌레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진노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지옥의 불바람 속으로 내던지셨고, 공의의 손길로 격렬하고 매정하게 그 벌레를 치고 또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실 때, 그분의 손길에서는 바람을 가르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기에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사 53:10)

젓세마네 동산의 흙먼지 속에 엎드려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운명이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복종으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얼굴을 아버지께 향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마 26:39).

그 무서운 잔에 담긴 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향할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의무에 충실한 얼굴은 죄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랑의 순종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II. 사랑의 순종

오래된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마주하신 이 시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충성은 시종일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충성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충성입니다. 먼저 “만일... 한다면”이라는 조건적 충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건적 충성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수의 직업을 주신다면 그때 십일조를 드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입장에서 저를 건져 주신다면 그분께 봉사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 주신다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안정시켜 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조건적인 충성입니다. 만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 것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무조건적인 충성이 있습니다.

2. 무조건적 충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충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충성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병이 갑자기 닥쳐온다 해도 저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저는 십일조를 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내일 직업을 잃게 될지라도 저는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제 삶이 불안정한 상태로 된다 해도 저는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겻세마네의 어둠이 저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제 앞을 어둡게 할지라도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우리는 욕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지만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 13:15)

21세기에는 종려 주일³ 크리스천은 많지만, 겻세마네 크리스천은 찾아보기

3. 부활절 직전의 일요일로서,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을 기념한 날.

힘듭니다. 태양이 빛나고 모두가 행복해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 주일에는 진정한 시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시험은 어두운 겿세마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상황이 유쾌하고 좋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형식적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러나 겿세마네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울 때, 주님 곁을 지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하와이 와이파후에 있는 라나킬라 침례교회에서 십자군 복음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겿세마네를 경험한 한 십 대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불교 신자로 자랐으나, 라나킬라 침례교회 부흥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줄곧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사실과 이제 침례를 받아 침례교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가족에게 말했을 때, 그 반응은 마치 달걀로 바위 치기와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몹시 분노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만약 침례를 받는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겿세마네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중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굉장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녀가 불구가 될 정도로 매질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더욱 심하게 때린 뒤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온 가족은 그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고귀한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했습니다. 분명 그녀도 가족에게 매 맞거나 버림받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에서 우러난 순종이 그녀를 붙들었기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마 26:39). 그녀는 오래된 올리브나무 아래 엎드려 사랑의 순종을 몸소 보여 주신 구원자 예수님께 이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소녀의 얼굴에

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얼굴, 곧 주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스러운 소녀처럼 구원자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벧전 2:21)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사랑의 순종에 있어서도 우리의 귀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그분을 온전히 닮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덕, 그리고 순종에 있어 완전하셨으며 은혜로운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인물들을 본받되, 그들이 그리스도께 동화된 정도 이상으로 그분께 더 깊이 동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전 11:1)

성경 속 성도들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학식이 많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사명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자신들의 결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결점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지니지도 않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점 없는 완전한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보여 주신 모범이 적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국

적이나 전통, 환경에 무관하게 그분 안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에 속하며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까닭입니다.

영국인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동 속에서 자신에게 합당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구원받은 중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분이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다시 태어난 은행가에게 합당하듯, 아프리카 정글 속에 사는 다시 태어난 이에게도 똑같이 합당합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분이 주후 30년에 그분 곁을 걷던 사람들에게 합당했듯, 오늘날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합당하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분이 보여 주신 본은 신앙의 선배인 크리스천 할아버지에게 합당하듯 크리스천 소년에게도 합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지니고 사람과 같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히 2:17)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 4:15)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가 마주한 겹세마네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우리는 어두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이러한 본보기는 삶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겹세마네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모

범이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니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결코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셨기에 친히 본을 보여 주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나?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벧전 2:20-21)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요일 2:6)

“훈계보다 본을 보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훈계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삶에 적용하기란 본을 보고 따르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보기는 우리 앞에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다면, 어려운 시험이나 고통스러운 시기가 닥쳐왔을 때 이를 잘 헤쳐 나갈 특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르는 동안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보여 주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바탕을 두었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무에 충실한 얼굴은 죄의 공격과 사랑의 순종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III. 생명의 희생 헌물

무기를 갖춘 난폭한 군중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로 왔을 때, 그분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조용히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26: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의 어두운 그림자와 씨름하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의 연약해진 육체를 강건하게 했습니다(눅 22:43). 그 뒤 예수님께서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시려 십자가 처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고귀하고도 거룩한 목적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준비를 마치셨고 그 뜻을 기꺼이 따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향한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호출장을 보냈으며, 이제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의미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함을 뜻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막 8:34)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겐세마네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말씀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응답하셨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호출장에 응답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물로 바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의 완전한 뜻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막 8:35)

크리스천이시여, 당신이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당신에게 보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곁에 가까이 서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당신이 받은 호출장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망설이는 마음을 미련 없이 바람 속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모든 계획을 저의 생활만을 위해 세웠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제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겐세마네는 바로 이러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자세히 바라볼 때 그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의무에 충실한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he Despised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8장

멀시당한 얼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던 날 새벽,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그분을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함하고자 많은 거짓 증인이 몰려들었고,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분은 평온을 잃지 않은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야바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가야바는 충혈된 눈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우며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를 오늘날 말로 하면 “네 말 그대로다.”라는 뜻입니다.

가야바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침을 뱉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서기관과 장로들의 군중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죽을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검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독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 26:67)

위 말씀 가운데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순수하고 거룩하며 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시자, 그들은 분노하며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증오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노려보며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팔이나 가슴, 손이나 다리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시받은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이전에도 몇 차례 얼룩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눈물로 젖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올리브 산에서 내려오실 때(눅 19:41),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요 11:35)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의 복된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졌습니다(눅 22:44).

그러나 이제 그 무엇보다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우며 유감스러운 얼룩이 그분

의 귀한 얼굴에 묻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침이라는 더럽고 역겨운 얼룩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마 26:67)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은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거미줄처럼 길게 늘어진 침을 맞으시며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계신 주 예수님의 멸시당한 얼굴(Despised Face)을 보십시오. 그 멸시당한 얼굴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해 줍니다.

I.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격노

역사는 인간이 마귀와 같은 포악함과 잔인함을 지니고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 줍니다.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인류의 선한 면만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 선함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시 14:2-3)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 7:20)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렘 17:9)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

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예의 바르며 사랑이 넘치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의 불꽃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나(눅 19:10; 딤후 1:15),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순간이 올 줄 아셨음에도, 길 잃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흐른 그 침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사 50:5-6)

왜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까요? 왜 그토록 심하게 경멸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내용을 살펴봅시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 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둘 다를 미워하였느니라. (요 15:22-24)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사악함을 덮고 있던 가식의 옷을 찢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자만심에 상처를 내셨으며, 부정함의 눈꺼풀을 들어올려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부정함이나 사악함으로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려 하여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 나갈 때 그

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시에 찢려 상처 난 머리 부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군인들은 조롱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피가 흐를 때까지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 뜯기도 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공동 집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 모은 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며 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여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마 27:26-30)

날카로운 채찍보다, 찢르는 가시관보다, 수염을 뽑는 고통보다 더 수치스러운 행위는 바로 그분께 침을 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분께 침을 뱉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한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거를 구하였으나 (마 26:57, 59)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공회 의원들은 모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체제를 다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밟으면서 처음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이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와 진리 사이에서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희생자인 아벨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 보십시오. 가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종교를 싫어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종

교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제단에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교를 거절하기 때문에 가인의 종교도 거절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린양을 제단으로 가져와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양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 안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아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벨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종교적인 가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전례를 제공하면서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섰고, 결국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교인들에 의해 처형된 하나님의 사람들, 즉 다시 태어나고 피로 씻김을 받은 이들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로마 카톨릭교회는 수백만 명의 프로테스탄트들과 수백만 명의 침례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력을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라 부르십니다(계 17:1).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가 고대 이방 바빌론 종교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신비, 큰 바빌론'이라고도 하십니다(계 17:5). 말세에는 신비 바빌론과 로마 카톨릭교회를 모체로 둔 배도자들이 다시 한번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세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계 17:6)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음모를 꾸민 이들이 종교적인 무리라는 사실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악한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요 8:44)

종교적인 군중은 언제나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정면으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살인적인 욕망이 종교적인 군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사탄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박해하며, 할 수만 있다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마귀의 자녀였으며, 아벨의 믿음과 행위가 자신의 종교와 반대되었기에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요일 3:12)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사악한 군중의 종교적 위선을 들춰내시자, 그들은 아비 마귀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을 죽이려 추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에게 구속(救贖)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으나, 그들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을 때 그 사악한 종교적 군중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시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행 2:22-23)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종교적인 군중에게 박해와 중상모략을 당하며,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이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일들에 놀라지 말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요 15:19-20)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거니실 당시에도 종교적인 군중은 그분을 미워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마귀에 속한 군중의 분노 대상이었으며,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들의 분노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오의 표현으로,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II. 우리 주님이 보여 주신 인내

저 사악한 종교적 무리와 야비한 로마 군인들 앞에서 계신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요 1:3)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요 1:10)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골 1:16)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히 1:2)

예수님께서서는 저 흉악한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의 소유물인 창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까? 그들의 입속에 있는 침마저 만드신 창조주의 귀한 얼굴에 침을 뱉다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제게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제게 침을 뱉었다면, 저는 그 즉시 그들을 지옥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저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 않습니까?

선데이(Billy Sunday) 목사는 잉거솔(Bob Ingersoll)이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을 설교할 때마다 몹시 흥분하여 정신을 잃고는 했습니다. 그는 설교단에서 두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우… 우!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잉거솔을 꼭 짓밟아서 땅에 처박았을 텐데!”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모습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며, 특히 타인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분은 얼굴 위로 흐르는 침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서 서서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쭙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왜 땅을 갈라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두운 하늘을 밝히는 불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선명하게 비춰 주는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 예수님의 눈을 응시하며 거짓말을 하고 담대히 그분을 거절했던 순간을 기억

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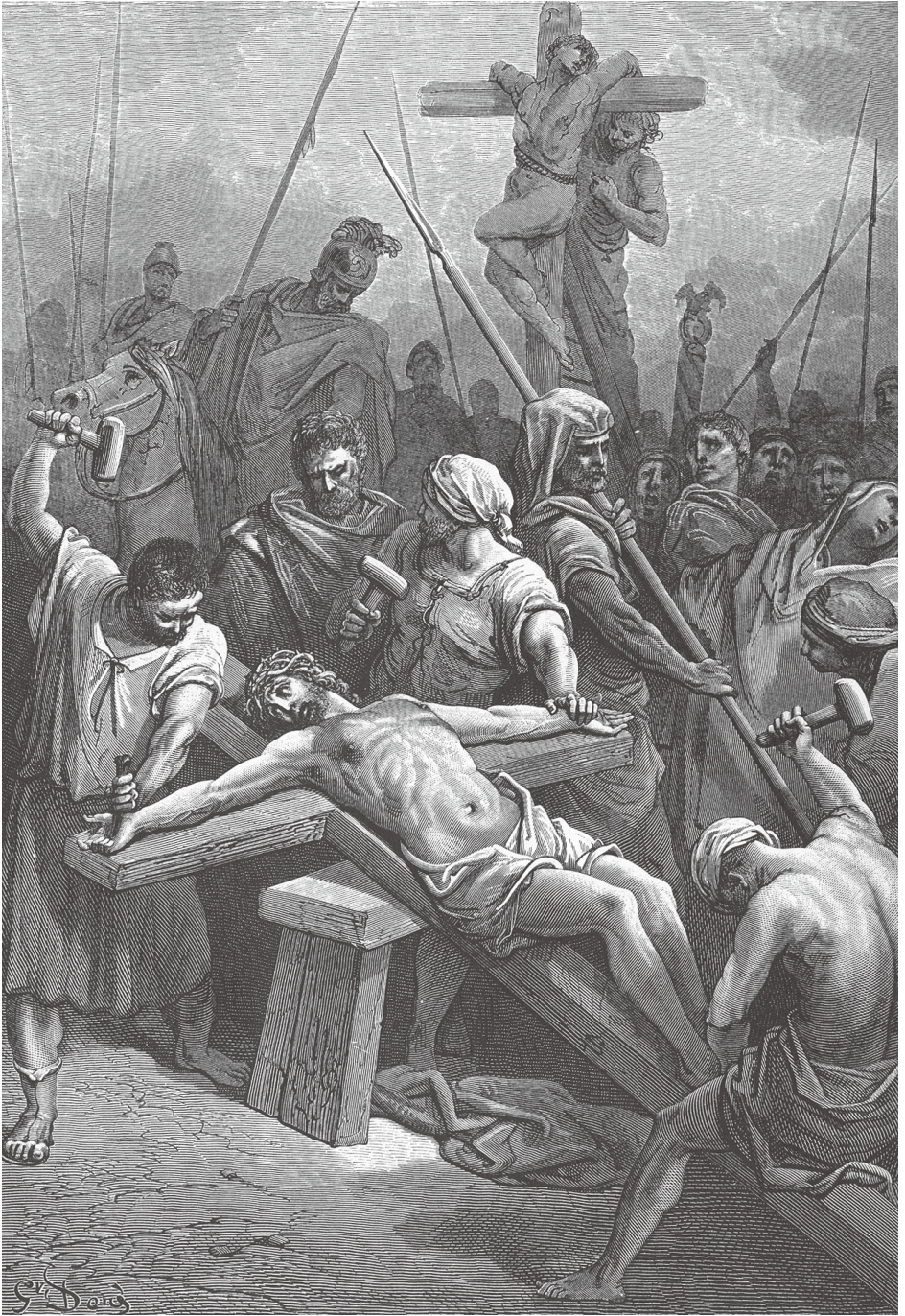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막 10:21)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 뱉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러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곧장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그분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는 참으로 경이로운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엡 3:19)

한계가 있는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서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경건치 못한 자들을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의 짧은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그분을 멀리하고 거절할 때조차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에 저는 너무나 깊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갈보리로 이끈 동력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힘 또한 갈보리에서 보여 주신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신과 저 같은 죄인을 향한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깃든 그 놀라운 온유함은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침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 멀리당한 얼굴에 나타난 인내를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단어 역시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의 은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III. 우리 주님이 보여 주신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실 때, 우리 주님의 귀한 얼굴에는 여전히 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며 서 계실 때도 그 흔적은 그분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에 지쳐 쓰러지시자,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넘겨받아 언덕 정상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파른 길을 힘겹게 오르시며 얼굴에 묻은 침이 말라 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뉘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동안, 얼굴에 말라붙은 침은 계속해서 그분의 살결을 당기고 조였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꽃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말라붙어 있던 그 혐오스러운 침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우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눈물에 젖어 다시 한번 축축하게 번져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 (눅 23:34)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자신을 못 박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의 온유한 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분의 입술이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하시는 동안, 눈물과 침으로 젖은 예수님의 떨시당한 얼굴은 다윗의 기록, 곧 “용서가 주께 있나이다!”라는 말씀을 확증합니다(시 130:4).

여러 해 전,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부모는 그가 장성할 때까지 늘 주님의 몸 된 교회로 꾸준히 데리고 다녔으며,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십 대가 되었을 때, 이 청년은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기로 걱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

님과 함께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불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은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었고, 부모님은 더 이상 그를 집 근처에 머무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지 않겠다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욕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사납게 날뛰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근처 작은 마을의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대도시로 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닦으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정이 많은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응석받이 아들을 위해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들은 울타리 너머로 지나가는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어떻게 사회의 밑바닥까지 빠져들었는지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죄악은 그를 거의 파멸시켰고, 그는 세상적인 것들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온갖 타락을 바로잡았으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 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그 끔찍한 순간을 절실히 후회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서 청년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탄다고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그는 용서를 빌었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부모님 탓으로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집 옆뜰에 있는 참나무 가지에 흰 천 조각을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그 흰 천 조각을 본다면 그는 정거장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무에 하얀 천 조각이 걸려 있지 않다면, 그는 기차에 앉은 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던 날, 아들은 나이 많은 노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를 빠져나오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

거운 마음으로 청년은 신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주의 깊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 부모님이 자네를 용서하시리라고 확신하네.”

“저도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꼭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지요.” 청년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기차는 부모님이 사는 작은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청년은 철로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 위치를 설명하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어르신, 저는 차마 참나무를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저 대신 우리 집에 있는 참나무 좀 봐 주시겠어요? 나뭇가지에 하얀 천 조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청년이 떨며 기다리는 동안 노인은 창가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지금 자네 부모님 집에 있는 참나무가 보이네. 그런데 왜 자네는 쳐다보지 못하는가?”

“너무 떨려서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자, 창가로 와 보게.” 노인은 청년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한 번 보게나.”

청년은 고개를 들고 기차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늙은 참나무 가지에는 수없이 많은 하얀 천 조각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름답고 놀라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멸시당한 얼굴에 관한 이야기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성경이 또한 “용서가 주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The Disfigured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9장

상처 난 얼굴

대언자 이사야의 훌륭한 예언서를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내용은 4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가져오리라. (사 42:1)

마태복음 12장 18-20절 말씀은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종’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단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지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요,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자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사 52:13-14)

원숙한 능력을 갖춘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은 무지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빛났으며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대언 속에서 유대의 작은 언덕과 태양빛에 바랜 갈릴리의 하얀 해안을 걷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3년이 넘는 공생애 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엄한 그 얼굴을 햇빛 아래와 그림자 속에서, 달빛과 등잔빛에 의지하여 기쁨과 슬픔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눈이 기쁨으로 빛나고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미소로 열릴 때도, 분노로 두 눈이 어두운 빛을 띠고 쓰라린 슬픔에 입술이 밀으로 처질 때도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시간’이라는 망원경으로 그 아름다운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고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시는 모든 행로를 추적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자 그분의 몸에 못을 박을 때, 극심한 고통으로 입을 꽉 다물고 얼굴을 찡그리시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여섯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이사야 대언자는 다시 예수님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분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예언’이라는 펜을 ‘영감’이라는 잉크통에 담가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요,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사 52:13-14)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모습’(visage)은 곧 얼굴을 뜻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어떤 사람의 상한 얼굴보다도 더욱 심하게 상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사 52:14)

어떠한 말로도 이토록 슬픈 모습을 모두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잠시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이 생소한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난 얼굴(Disfigured Face)이 세상의 그 어떤 얼굴보다 더 흉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과나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말씀을 읽고 곧장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들은 상처로 인해 흉측하게 변한 얼굴을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병원 응급실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찢어지고, 일그러진 채 피 흘리는 얼굴들... 심하게 얻어맞거나 화상을 입고 찌그러진 채 망가진 얼굴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때는 가련한 환자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구조되기도 합니다. 사나운 짐승의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뿐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난 유리, 꺾인 금속, 불과 뜨거운 액체, 산성 물질, 폭발물, 총알, 그리고 칼 등은 쉽사리 사람들의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수 세기를 거치며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얼굴을 난도질당하거나 잃었습니다. 여러 해 전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휘발유 폭발 사고로 얼굴이 다 타 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얼굴이었던 자리에는 본래의 색을 잃은 피부와 굵힌 흉터만이 남아 있었고, 피부 조직은 울퉁불퉁한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덴버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던 시절, 저는 그 도시의 부랑자 거주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는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며 얼굴에서 피를 쏟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술집 안에서 싸움에 휘말렸는데, 상대방은 일부러 맥주잔을 깨뜨린 뒤 날카롭고 톱니처럼 변한 술잔으로 그의 얼굴을 깊숙이 내리쳤습니다. 그의 코는 수직으로 반이 갈라졌고, 벌어진 코 사이로는 검붉은 핏덩이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처 난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혹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망가진 얼굴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

언자 이사야는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상처 난 얼굴이 이제까지 살
았던 그 누구의 얼굴보다 더 많이 상했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감정에 복받쳐 정신을 잃었던 게 아
닐까요? 실제와는 다른,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건 아닐까요? 주님의 상처
난 얼굴을 묘사하며 고난당하는 구원자를 향한 동정심에 치우쳐 말을 꾸며낸
건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글은 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
님께서 이사야의 펜을 통해 친히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입니다(딤후 3:16; 벧후
1:21).

그렇다면 예수님의 상처 난 얼굴이 다른 모든 사람의 얼굴보다 더 상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로 다시 돌아
가 봅시다. 이사야의 선포가 진리임을 보여 드리기 위해, 먼저 다른 이들의 얼
굴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더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요인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상처를 냈지만, 그것만으로
는 그렇게 심하게 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으며 군사들이 가
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힌 뒤 이르
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요 19:1-3)

예수님께서서는 잔인한 로마 군사들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은 그분
의 머리를 억세게 조였고,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 끝은 얼굴의 일부인 그분의
이마를 깊게 찔렀습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세계 때렸습니다. 펼친 손바닥으로 때
렸을 뿐만 아니라, 분명 주먹으로도 그분을 쳤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
의 얼굴을 때렸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눅 22:64).

지금까지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얼굴을 상하게 한 세

가지 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들의 채찍과 가시관, 그리고 군인들의 움켜쥔 주먹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주님의 얼굴을 상하게 한 것들

1. 로마 사람들의 채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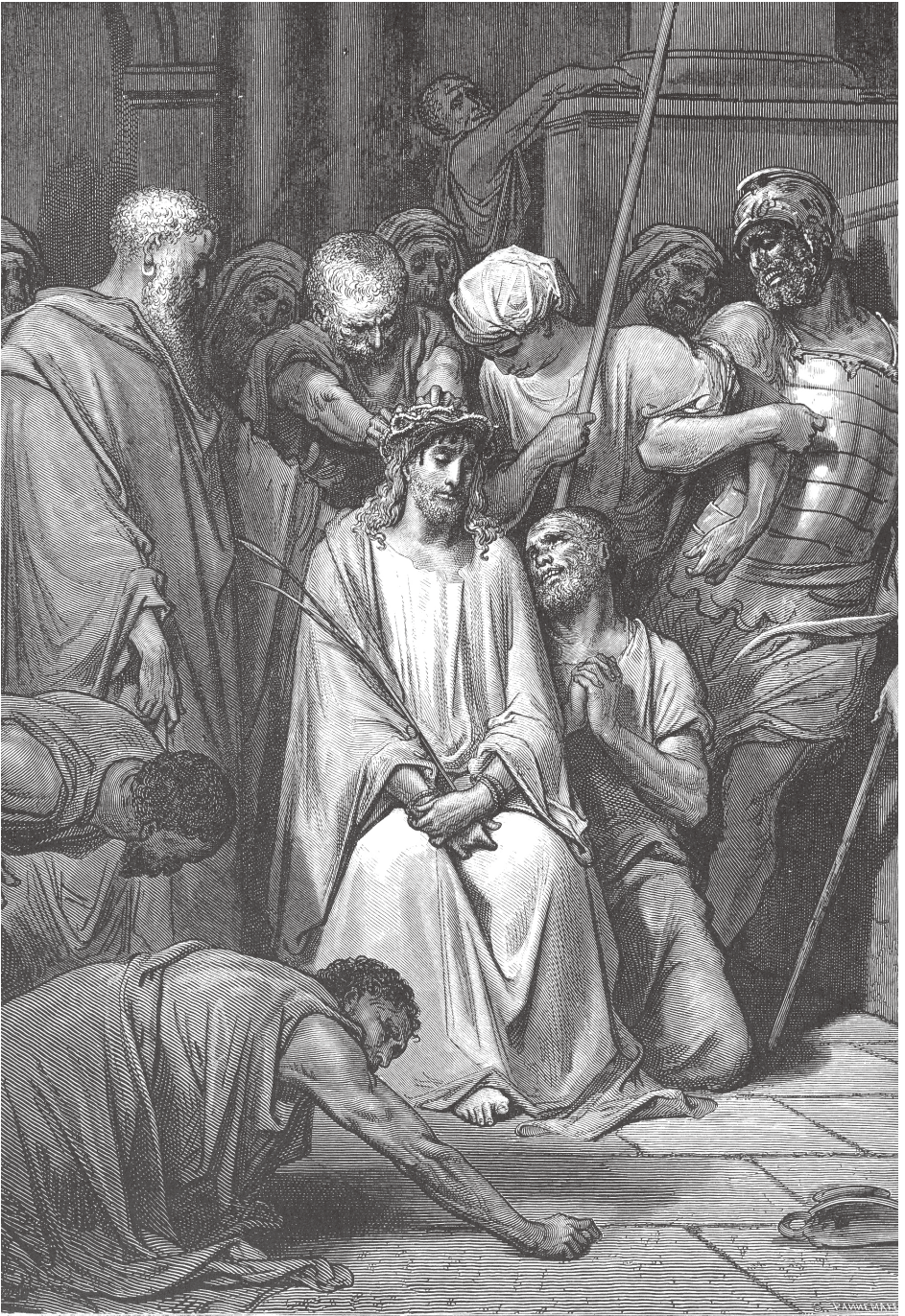
저는 채찍질을 전담하던 숙련된 로마 군인이 황소 등가죽으로 만든 긴 채찍으로 죄수의 얼굴을 어떻게 내리치는지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휘둘러 단 한 번의 몸짓으로도 한쪽 귀를 자를 수 있음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가르며 소리를 내는 채찍을 사람의 얼굴 앞에서 뱅치듯 꼬이게 하거나, 코끝을 잘라내고 눈을 빼낼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희생자의 배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함은 당시 예사였기에, 저는 그들이 휘두른 사악한 채찍질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이 크게 상하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외에도 인류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모진 채찍질로 불구가 되거나 얼굴이 갈기갈기 찢긴 채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많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기록한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사 52:14)라는 말씀은 로마 사람들의 채찍질로 인한 상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가시관

저는 크리스천 의사들이 예수님께 강제로 씌웠던 가시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시관의 소재인 덤불에 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잔인한 군인들이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강제로 눌러 씌웠을 때, 날카로운 가시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관에 독을 퍼뜨렸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가시관을 씌운 뒤, 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대가 막대기처럼 단단하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날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롭고 독이 있는 가시들을 예수님의 머릿속 깊이 박아넣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혈관에 침투한 독은 분명 예수님의 머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부기로 인해 가시에 찔린 상처는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혈관에 침투한 독 때문에 머리와 얼굴이 부풀어 오른 사람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즉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사 52:14)라는 구절은 가시관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상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군인들의 주먹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고 (눅 22:63-64)

이르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요 19:3)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 순간도 죄의 길을 걷지 않으신 그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한 사악하고 단단한 주먹으로,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분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도 위선을 부리지 않으신 그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악한 로마 군인들의 강하고 거친 주먹, 그리고 굳은살 박인 손바닥에 맞아 멍들었을 그 귀하고 상처 난 얼굴을 떠올리면 제 가슴속에는 피가 솟구치는 듯합니다! 그분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단단한 주먹에 맞아 멍든 얼굴을 한 사람들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얼굴은 구타로 인해 상처 입고 부어올랐지만,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사 52:14)라는 말씀은 결코 로마 군인들의 주먹질만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어떤 이의 얼굴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더 많이 상하게 만든 세



조롱당하는 예수님

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II. 주님의 얼굴을 더 상하게 한 요인

1. 죄라는 산(酸)

사람의 얼굴에 산(酸, acid)이 얹힐러지거나 뿌려지면 용모가 심하게 상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 즉 ‘죄’라는 산(酸)이 자신의 얼굴에 뿌려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사 53:6)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벧전 2:2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 정오에 칠혹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마 26:39; 요 18:11). 이 잔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고 있었습니다(요 1:29).

예수님께서서는 이 잔의 내용물을 모두 마심으로써 우리의 죄라는 산을 자신의 몸 안팎에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덮었던 저 악하고 불타는 죄의 산은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사 52:14)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온 인류의 쓰디쓴 죄악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실제로 해내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이 저지른 죄부터 이 세상에 가장 최근 태어난 사람이 저지른 죄들까지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잔인하게 상처를 지지며 피부를 태우는 죄라는 산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귀한 얼굴을 상하게 했습니다. 살인자, 도둑, 강도, 강탈자, 매춘부와 포주, 동성애자, 난봉꾼, 성도 착자, 주정뱅이, 강간범, 거짓말쟁이, 사기꾼, 전쟁 도발자, 저주하는 자, 우상 숭배자, 성추행범, 탐욕가, 범죄자, 마약 중독자, 음란물 유포자, 매춘 알선자, 공금 횡령자, 산적, 이단 종파 추종자, 이단 종파 지도자, 교황, 이교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간음을 행한 자, 그리고 성경을 증오하는 자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죄가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네로의 죄가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죄가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히틀러의 죄가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스탈린, 부스, 오스왈드, 제임스, 헤프너, 플린트, 엘리자베스 테일러, 길모어, 록 허드슨과 그 외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죄가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물론 저의 죄 또한 그분의 얼굴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얼굴을 지지고 태운 인류의 모든 죄의 산 때문에, 대언자 이사야가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사 52:14)라고 기록한 것은 자명합니다!

2. 시간의 흔적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은 얼굴을 변하게 하고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시간은 아랑곳없이 흐릅니다. 우리의 젊음은 이토록 빨리 지나가 버리며, 시간은 겉모습에 피할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40대를 넘어설 때쯤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눈

가의 미세한 주름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오, 안 돼!”라고 당황하며 말하곤 합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 하고는 곧장 달려가 ‘올레이 오일’ 한 병을 사서 눈가에 바릅니다. 해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바르지만,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50대에 접어들면 눈가의 주름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시간은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안면 근육과 두 눈은 처지고 턱은 힘을 잃습니다. 보조개는 길고 깊게 패입니다. 우리 중 이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노화를 몰고 옵니다. 세월의 흔적은 젊은 시절을 지나온 이들의 얼굴을 노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 시간의 흔적에 의해 그 누구보다도 상하셨음을 지적하려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 뒤, 성경과 상식으로 이를 증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세 시간의 어둠 속에서, 문자 그대로 지옥에서의 영원과 맞먹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를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은 상태로 죽는다면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사 53:10)

죄의 값은 사망이나 (롬 6:23)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계 20:15,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요 8:21)

사악한 자들은 돌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시 9:17)

자! 이제 이 진리들을 하나로 묶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막 16:19). 연옥이나 지옥의 변방으로 알려진 림보(limbo)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가는 유일한 곳은 지옥뿐입니다.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란 없으므로(계 22:11), 죄인은 불 호수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 불 호수의 최종적이고도 영원한 상태가 곧 지옥입니다(계 20:14).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살다 죽었을 때 받는 형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벌을 받으셨나요?

위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그분의 혼이 죄로 인한 헌물, 즉 희생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저와 당신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 희생물이 되셨을 때, 그 어둠의 세 시간 동안 그분은 지옥의 영원을 보내셨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거룩함은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만

일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당신과 저는 소망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역지로 이해하려다가는 심한 두통을 겪을 뿐이며 결코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영원’이라는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의 영원을 보내신 신비를 인간이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사 52:14)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의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모시킵니다. 그렇다면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 지옥의 영원을 보내신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의 흔적은 그토록 예수님을 상하게 했고, 그 결과 그분의 얼굴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상하게 되었습니다.

3. 하나님의 손

로마 군인들의 하잘것없는 손과 주먹은 예수님의 얼굴을 상하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이 감당해야 했던 진정한 고난과 채찍질은 로마 군인들의 매질이 끝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사 53:4, 10)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어둠 속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매를 맞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했듯, 예수님께서서는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셨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려다보시며 그분을 더 이상 아들 예수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는 인류의 모든 죄가 응집된 죄 덩어리이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뱀이나 벌레 같은 존재로 그분을 보셨습니다(시 22:6).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안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적개심이 뜨거운 진노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무자비한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맞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상하게 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의 죄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또 치셨으며, 그분을 병들고 멍들게 하여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이와 같은 매를 맞아 본 적이 없으며, 맞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감동시켜 다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까닭입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사 52:14)

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분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깊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놀라운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The Desolate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10장

고독한 얼굴

권위 있는 웹스터 사전은 ‘고독한’(desolate)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홀로 있는, 버림받은, 절망적인, 자포자기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깃든 고독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쓸쓸한 얼굴, 부모에게 외면당한 아이의 자포자기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또한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해 야위고 망가진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에게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약 6,000년 인류 역사상, 이 지구에 살던 이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적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닥쳐왔을 때 이 땅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얼굴에 서린 고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

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마 27:45-46)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1시는 지금의 오전 7시이며, 2시는 8시, 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때가 세 시가 되어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막 15:25)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처럼 어둠은 낮 12시(제육 시)에 온 세상을 덮어 무려 세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실 무렵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고독으로 일그러졌고, 그때 그분은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영어 단어 중 가장 비참한 말은 ‘버림받다’(forsaken)입니다. 저는 심각한 곤경에 빠졌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주위를 살폈으나, 친구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병들고 가난한 처지에 놓인 한 부인을 압니다. 죽음의 갈라놓을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던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처지를 비관하며 울며 한탄합니다. 저는 두 볼에 눈물을 흘리며 텅 빈 집을 배회하는, 허기지고 추위에 떨며 낙담한 어린아이를 떠올려 봅니다. 부모는 아이를 험난하고 무관심한 사회에 외로운 희생자로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어떻게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비참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경이롭고도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 지구 전체가 어

둠에 뒤덮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눅 23:44). 십자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음 소리를 들었지만, 다음과 같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울부짖음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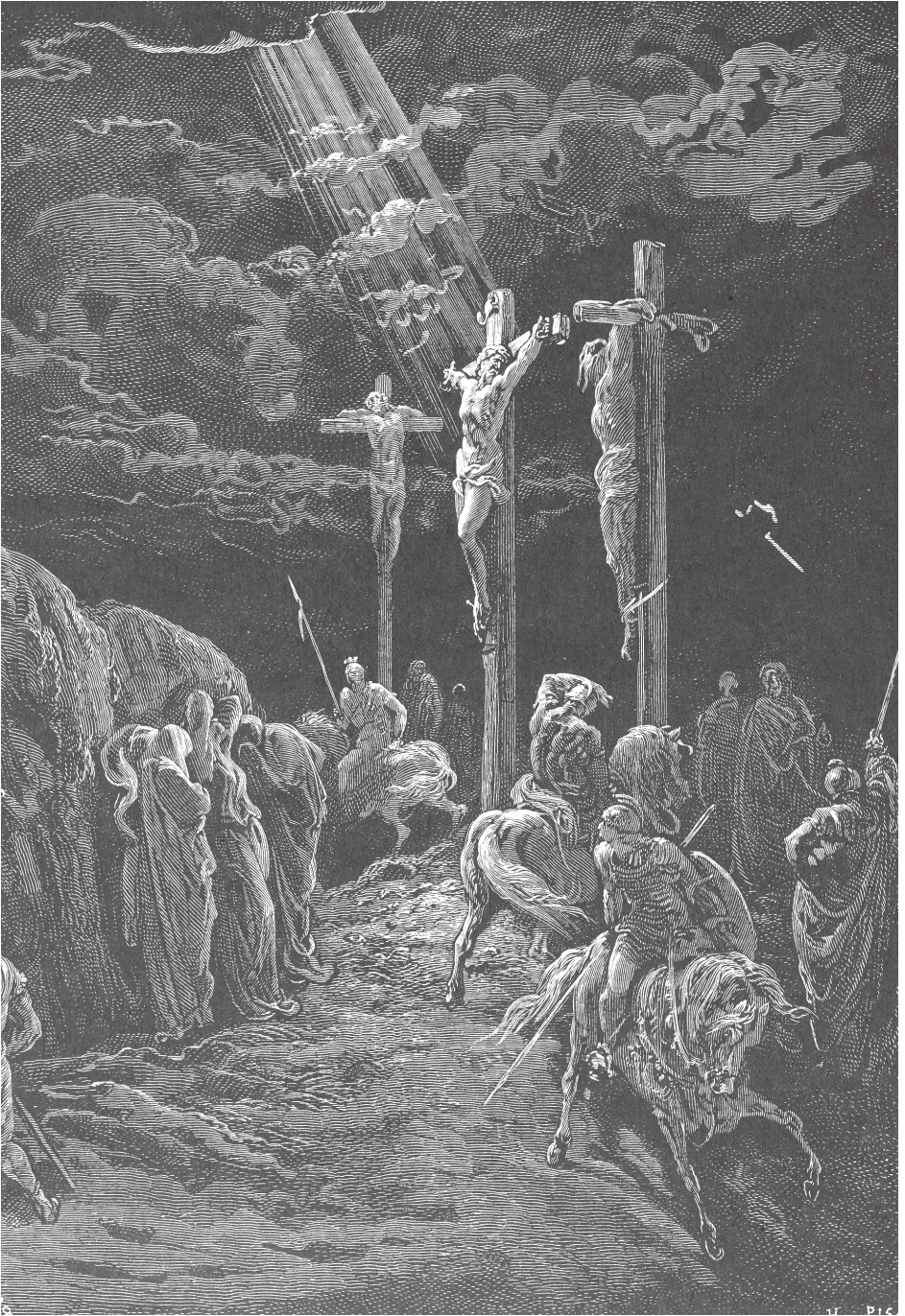
아흠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마 27:46)

갈보리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버림받는 아픔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가족이 그분을 저버렸고, 고향 사람들도 그분을 저버렸습니다. 그분이 시민으로 있던 그 나라도 그분을 저버렸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분을 저버렸습니다. 친히 고쳐 주시고 낮게 해 주신 사람들도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배신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로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야위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리셨을 때에만 비로소 고통의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 예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매 순간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산에 오르시어 하나님과 깊이 대화 하셨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버릴 때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과 우정 속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지할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공할 공포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고통에 찬 외침을 끌어냈습니다.

아흠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마 27:46)

밝은 방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어둡침침한 방에 있다가 들어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을 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느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눈부신 빛을 받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 무서운 어둠에 강제로 들어가셨을 그때야말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것처럼 버림받으셨다는 공포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든 버리실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 62:8)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 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 4:31)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삼상 12:22)

위의 진리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침을 듣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니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

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 37:25)

그러나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당신에게 네 가지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점들을 살펴본다면 왜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고독한 얼굴(Desolate Face)이 그토록 쓸쓸해 보였는지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I. 무서운 저주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주 예수님께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하셨던 말씀과 어둠 속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요 11:42)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시 22:1-2)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 8:29)

그러나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흠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마 27:46)

저주받은 나무 위에 달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 17:24)

고통 속에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존재한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잠 8:22-23, 30)

무서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있던 그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 17:5)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예수님의 집이었으며, 하나님의 가슴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땅 위에 계셨던 33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단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을 떠나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외치셨을 때 어둠 속에서 그분의 얼굴에 드러난 실망과 고독은 얼마나 컸을까요! 분명히 이 말씀은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II. 비할 데 없이 애처로운 말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외치셨을 때, 이 애처로운 부르짖음은 그분이 받으신 고통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 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요한은 이를 뒤흔치고 십자가 밑에 서고 자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증오심을 쏟아냈고, 군인들은 그분을 지독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가시로 엮은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때리며 침을 뱉었고, 그분의 수염을 거칠게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하늘과 땅 사이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고초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상스럽고 야비한 군중은 예

수님을 비웃었고,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웃으며 내기를 걸었으며, 함께 달린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방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불평이나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고통받으시면서도 주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셨음을 깨달으셨고, 이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외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III. 깊은 뜻이 담긴 계시의 말씀

십자가에서 깊이 절망하셨던 예수님의 고독한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보리에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을 때 부르짖으신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신 뒤, 잠시 후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니이다. (시 22:1-3)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을 때, 골고다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의 마리아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난 군중들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기록하십니다!”

이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며,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강력하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 데도 주의 허를 억제하시나이까? (합 1:12-1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사 53:6)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벧전 2:21, 2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인류의 죄는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 위에 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둠 속에서 문자 그대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고후 5:21).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쳐다보실 수 없기에,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짊어지신 동안 완전히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되심으로써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더 이상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시 22:1, 4-6)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비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와는 달리 가혹하게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버림받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둠 속에서 죄 자체가 되셨기에 더 이상 아들로도, 심지어 사람으로도 여겨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벌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제 말에 의구심이 드십니까? 이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되셨습니다 (고후 5:21).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눅 23:34)

우리의 죄를 감당하며 친히 죄 자체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시며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저는 말 그대로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진노의 손길을 제게 쏟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몸소 우리의 죄를 떠맡으셨을 때, 주님께서 철저히 홀로 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버림받음은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려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살후 1:6-9)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과, 이 파멸의 형벌이 곧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는 일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저버리고 완전히 포기하십니다.

처음 당신에게 생명과 존재 이유를 주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모든 선(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결별,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종교나 인본주의 철학에 얽매어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하나님 앞을 떠나 영원히 추방되는 일, 즉 그분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계 20:14; 21:8), 즉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가야 할 영원한 처소인 불 호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이들은 죽어 없어지지 않고 불 호수에서 영원토록 불타며 생명의 주님과 분리됩니다. 이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셨을 때 겪으신 그 단절과 동일한 분리입니다.

만일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형식에만 매달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 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침례(혹은 세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성실히 다니거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예수님께 기도드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방언을 하고 로사리오(천주교의 묵주)를 돌리며 마리아를 찬양하고, 매주 일정액의 헌금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윤리적 삶이 무익함을 깨닫고, 지옥으로 향하는 당신의 혼을 구하기 위해 주 예수님을 부르며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대로라면 당신이 불 호수에서 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버리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여, 이러한 비극이 당신의 운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갈보리 산 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구원하고자 살아 계심을 믿기만 하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분 앞에 고개 숙여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사악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뜻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그 순간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만일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역자)에게 편지나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저 역시 당신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IV. 매우 엄숙한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외치셨을 때, 그 음성은 온 땅을 진동시켰고 온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보이면 즉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요일 4:8, 16)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혈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죄인들에게 공혈이 값없이 흐르게 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의로운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방법이었습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중재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나서주셨음은 더없이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대언자 나훔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격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 누가 그분의 격노 앞에 설 수 있으리오? 누가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오? 그분의 격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에 의해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나 1:2, 6)

오직 전능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열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저주를 감당하며 그 분노를 참아내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공의로운 보복의 분노를 참아내어 하나님의 법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공격으로 뒤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 상한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히 2:14).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을 세우셨으며(시 89:19),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분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러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고독한 얼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 봅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The Divine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11장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분명히 신성을 지니신 얼굴입니다. 신성을 띤 얼굴과 관련하여 저는 독자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Divine Face)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가진 사전은 ‘신성’(deity)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상태. 또한 ‘신성한’(divine)이라는 형용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월등하게 훌륭하고 선한’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성한’(divine)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따라 참되신 하나님의 얼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주 예수님의 얼굴만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얼굴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선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로 나타난 두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님의 얼굴을 뵈었으며 송아지 요리를 정성껏 대접해 드렸습니다(창 18:1-8).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바로 전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얼굴을 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소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습니다(삿 13:1-2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뵈었습니다(단 3:21-25).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보여 주신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세기의 씨름이 열린 브니엘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창 32:24-25, 30)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깃든 영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거니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 머무시

는 동안 그분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하고자 합니다.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같은 얼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I. 슬픈 얼굴

예수님께서 사악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게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요 2:23-25)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하고 기만으로 가득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동기가 불순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부패한 이들의 잘못된 기준과 가치 없는 이상을 보셨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눈이 멀어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 눈썰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한 길 잃은 죄인들이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 속에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슬픔을 겪어지신 분이셨으며 비통함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사 53:3). 슬픔을 담당하셨기에 그분의 얼굴에는 자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 표정은 마음속 깊은 슬픔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들에게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셨

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폭풍을 결코 견뎌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길 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서 부끄러이 심판을 받고, 지옥 불꽃 속으로 던져질 날이 다가옴을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물 붓듯 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님의 얼굴은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II. 수의로 덮인 얼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의 얼굴은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눅 19:10)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딤후 1:15)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고, 땅속에 묻히셔야 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히 9:22; 마 16:21). 로마서 1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 자체가 곧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날 다시 일어나시고 (고전 15:1-4)

당신은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제가 사람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해도, 그날의 상황을 모두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돌아가신 사건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람의 말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¹이라는 책을 썼고 수백 번 설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여전히 그 깊이의 끝면만을 만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땅에 묻히신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42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새파랗게 변한 손과 발에서 못을 뽑아 낸 이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몰약과 알로에로 그 생명 없는 몸을 씻은 후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아마포로 그 몸을 감쌌습니다. 그런 다음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수의로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요 11:44).

이처럼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수의에 덮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 안에 놓였으며 얼굴은 죽음의 천으로 덮였고, 무덤은 돌로 봉인되었습니다. 서른세 해를 사시는 동안, 이 잔인한 세상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홀로 두었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빌린 십자가에서 죽고 빌린 돌무덤에서 잠들어 있던 바로 그날 밤,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분을 따르던 가련한 사람들은 완전히 실망하고 낙담하여 갈보리를 떠났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이에게 “잠시 기다려 보세요. 이제 72시간만

1.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엘 레이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예요!”라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그들 중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셨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수의에 덮인 그 얼굴은 이제 부패의 길로 접어들 처지였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그날 밤처럼 인간의 생명을 절망의 그림자로 덮은 적은 없었으며, 온 세상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모든 가엾은 여인들이여, 돌아가십시오! 눈물 자국 가득한 얼굴을 집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여, 돌아가십시오! 원래 일하던 그 바다로 되돌아가십시오. 새 그물을 사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마태여,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전에 몸담았던 공무원 직분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돌아가십시오! 요한의 집에 있는 당신의 방으로 가서 가슴에 새겨진 무서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살펴보십시오. 처녀의 태에 모셨던 그분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나사로여, 베다니로 돌아가십시오! 죽음의 골짜기와 무덤의 검은 경계로부터 당신을 건져 내신 분이 이제 스스로 그곳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그분이 살려 주신 당신과 과부의 아들, 그리고 치리자의 딸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입구를 가로막은 커다란 돌에 눈물을 뿌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여, 돌아가십시오! 평생 그물과 어선과 바다와 함께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느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운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더는 그분께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발을 씻어 주신 분은 이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통치자 빌라도여, 이제 당신의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이들이 선고를 기다리며 당신 앞에 서게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죄 없는 분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눅 23:4)라고 선언할 대상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죽대 없는 판결로 인한 죄책감이 당신을 괴롭히겠지만, 어쨌든 그 강렬했던 예수님의 눈은 더 이상 당신의 혼을 곧바로 꿰뚫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여, 돌아가십시오! 잔인한 살육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눅 23:34)라고 기도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여,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죄수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입술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라고 고백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여, 돌아가십시오! 아프리카 당신의 모국으로 돌아가, 이 비참한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 동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산꼭대기까지 갔는지 들려주십시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목격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몬이여, 떠나기 전에...,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뒷이야기라뇨?” 시몬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해 드리지요.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때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렇게 그들 돌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 먼저 돌무덤에 다다른 뒤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요 20:1-7)

주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여,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인 수의에 덮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십시오! 시몬은 숨을 헐떡이며 묻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귀담아들어 보십시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매 (요 20:19-20)

시몬이여, 어디를 가든 이 사실을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님의 얼굴은 수의로 덮인 얼굴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얼굴이기도 합니다.

III. 사람들이 본 얼굴

“사람들이 본 얼굴이라고요?”라고 시몬이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의를 벗어 던지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

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위대한 부활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20:11-18), 열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요 20:19-20),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19:25),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친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눅 24:13-35). 또한 이레가 지난 후에는 부활하신 날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 오백 명 이상의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습니다(고전 15:6)! 그분의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한 얼굴입니다!

시몬은 다시 묻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장차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두 그룹이 더 남아 있습니다!

1.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계 1:7)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분노에 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앞에서 통곡하게 될 사실로 인해 몹시 두려워하며 경악할 것입니다!

2.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 3:2)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때를 상상해 보십

시오!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다윗의 고백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 관한 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5)

주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이신 당신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The Disguised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12장

변장한 얼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오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망과 슬픔에 잠겨 집으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 묻히셨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무덤에서 그분의 시신을 훔쳐 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만난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말을 의심했습니다.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육십 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눅 24:13-16)

우리 주님께서는 길 위에서 슬퍼하던 이들에게 다가가시며 자신을 변장한 얼굴(Disguised Face)로 보이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 중의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 16:12)

변장한 얼굴로 나타난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낮선 행인에게 자신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매장되었으나, 이제 누군가 시신을 훔쳐 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몇몇 여인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지만, 자신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행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눅 24:25-26)

이어서 변장하신 구원자께서는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그분은 상세한 강론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이상한 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뜨거움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분이 떠나시지 않도록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함께 빵을 나누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눅 24:30-31)

길에서 만난 그 이상한 분은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구원자, 즉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식탁의 음식을 그대로 둔 채 사도들과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겪은 일

과 빵을 나눌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말했습니다(눅 24:35).

우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손들에게 대대로 들려주고 싶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변장하셨음이 드러난 결정적인 순간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빵을 나눌 때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0-31절을 읽어 봅시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빵을 집으려 손을 옷 속에서 꺼내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분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였고 그분의 변장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빵을 나눌 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영광이여! 영광이여! 영광이여! 참으로 기쁘고 흥분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얼마나 극적입니까! 두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먼 길을 되짚어 달렸습니다. 아마 그때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변장하셨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셨다면, 제자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그토록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못 자국 난 손을 마주하는 순간 그들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방법을 참으로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장하신 적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사건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텅 빈 무덤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하신 예수님

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도가 광경을 확인하고 집으로 떠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슬피 울며 돌무덤 밖에 서 있다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갔으나 그들이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뒤로 돌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알려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요 20:11-15)

자, 이제 저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해야 할 듯합니다. 전에 이 부분을 읽은 적이 있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여 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 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막 16:9)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를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때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마귀에게 경배했습니다. 사탄은 그녀의 몸에 자신의 악한 영 일곱을 집어넣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사악하고 부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히 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선가 이처럼 불쌍한 상태에 처한 그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능으로 그녀에게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녀의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다. 마리아는 깊은 죄에 빠져 있었고 많은 것을 잃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구원받은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를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눅 7:47)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의 구원자인 예수님 사이에 놀라운 사랑의 결속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사랑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나의 살아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리라.”

자, 이제 공동묘지에서 펼쳐진 장면으로 돌아가시기 전,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목자로 오신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요 10:4)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들의 목자가 내는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그 음성은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음악과 같습니다.

자, 다시 그 이른 새벽의 공동묘지로 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 변장한 얼굴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장소에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그분

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며,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요 20:15)

이렇게 말한 뒤 그녀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동산지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독자여,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몸을 돌려 그분께, 랍 보니여, 하고 말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요 20:16)

‘동산지기’에게서 등을 돌려 울고 있을 때, 그녀는 그분께서 한마디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깜짝 놀라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뒤 그녀는 이제 변장하지 않은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생님!”

마리아는 급히 그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녀는 그분을 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를 막으셔야 했습니다. 아직 하늘들을 통과하여 자신의 피를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가져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순간 그녀가 자신에게 손대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기쁘게 안을 수 있었습니다!(마 28:9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친숙한 음성을 들었을 때 주위를 돌아보며 감격에 겨워 숨 가쁜 목소리로 “선생님!” 하고 외쳤던 장면보다 제 가슴을 더 감동시키는 장면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가장 경이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4,000년 동안 ‘사망’(Death)으로 알려진 무자비하고 무서운 폭군이 사람들을 붙잡아 차고 음침한 자신의 궁전으로 끌고 갔습

니다. 이 40세기 동안 ‘사망’은 자신의 어두운 영역에서 왕 노릇 하였고, 무자비한 행위를 저지르는 데 아무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망은 왕과 여왕, 정복자와 위인, 평범한 남녀와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삼켜왔습니다. 이 ‘사망’은 숨을 헐떡이며 창백한 얼굴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신의 무서운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망’의 궁전은 분명 소름 끼치고 흉측한 곳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곳을 그려 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저 차갑고 끈적끈적한 벽, 즉 섬뜩한 그림자가 덮인 벽이 느껴집니다. 해골로 된 선반과 기둥, 그리고 해골로 된 희색 제단이 보입니다. 그 침침한 방들은 수십억 개의 해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은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죽은 아벨의 뼈 위에,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해골을 쌓아 올렸습니다.

4,0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폭군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었으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놀라운 날, 권능을 지닌 한 낯선 이가 해골이 즐비한 정문을 통해 그 궁전에 들어갔다가 무시무시하고 어둡침침한 궁전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그분은 그 무서운 방들을 살펴보고 해골이 있는 곳을 지나 어두운 복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궁전을 조사하며 전능하신 그분은 검은 지하실과 발을 들이기조차 꺼려지는 지하 감옥을 열었으며, 음침한 작은 방을 응시한 뒤 왕의 거처를 살폈습니다. 그분은 무서운 궁전을 떠받친 두 개의 기둥으로 가서 이를 휘어잡고, 기둥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밖으로 걸어 나와 음침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어 경첩에서 문짝을 떼어 내 훌쩍 들어 올리며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진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사건을 기록한 이 구절에는 매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와 당신, 그리고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자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셨습니다. 이 교훈들을 살펴봅시다.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에 관해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분이 무덤에

서 나오며 동산지기의 오두막에 들러 그의 작업복을 입으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어찌 되었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공동묘지의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변장하신 모습에 담긴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I. 평범한 모습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뒤로 돌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알려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요 20:14-15)

눈물로 볼이 다 젖은 마리아는 동산지기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남자, 즉 예수님께 얼굴을 돌렸고 그 순간 그분을 무덤 도둑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리아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한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으며, 오직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만 그녀가 자신을 알아차리길 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요 10:3)

그리하여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분은 목소리조차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마리아에게 알리고자 했을 때, 그분은 평소의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등을 돌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이 낮선 분은 온 천하에서 가장 감미로운 말씀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요 20:16)

바로 그 순간 의심의 안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주님께서는 살아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유대인 동산지기와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소유하신 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팔꽃에 햇빛을 비추시고 지구라는 정원에 해바라기를 심으시며, 장미 꽃잎에 아름다운 빛깔과 영광을 부여하시는 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지기로 변장하여 마리아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평범한 의복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주일에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일주일 내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단지 자신의 주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는 오로지 부(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동산지기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과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망과 피로, 경제적인 문제들과 세상적인 시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부엌에서,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원에서 이 세상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임을 알려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의지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II. 건강한 모습

사흘 밤낮 동안 무덤에 놓인 예수님의 몸은 생기를 잃고 쇠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실 때 그분의 몸은 상처 입고 멍들었으며, 찢기고 부풀어 오른 채 창백

하고 초췌한 피투성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환자나 시체, 혹은 유령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아침 공기를 마시며 햇살 아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손과 등으로 정직하게 수고하는 남자! 양 볼이 햇볕에 그을려 건강미가 넘치는 남자로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토록 생기 넘치고 건강한 동산지기로 변장하셨을까요?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 우리 역시 생기가 넘치고 강건하며, 건강미 넘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원히 갖게 됨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빌 3:20-21)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 3:2)

할렐루야! 오, 그분과 같이 변한다니! 우리가 고통과 질병, 연약함과 노쇠함을 모르는 육체를 입게 될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동산지기로 변장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II. 하늘의 모습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 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막 16:9)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그분을 뵈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사벳도, 한나도, 에스더도, 드보라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렛의 마리아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일곱 마귀에게 고통받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일곱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눅 8:2)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 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막 16:9)

과거에 죄와 불법에 깊이 빠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나고자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는 부활 후 만나야 할 이들이 많았고 그들을 선택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변장한 모습으로 맨 처음 나타나신 까닭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당신과 저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죄 많은 죄인에게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롬 5:2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도달하지 못하실 만큼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요청하면 모두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심으로써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죄에 깊이 빠졌던 그녀였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수많은 죄 역시 깨끗이 씻겨 잊혔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고전 6:11)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 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 1:12-14)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 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계 1:5)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위대한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 낭랑한 음성으로 제 이름도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 함을 입어 구원받은 상태로 말입니다!



The Destructive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13장

파멸시키는 얼굴

위대한 대언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왕좌가 있는 방을 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을 이사야서 6장의 첫 일곱 구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는 왕좌가 있는 그 방의 찬란한 모습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사 6:3) 라고 외치며 주위를 날아다니는 스랍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뵈자마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사 6:5)

주 하나님을 잠시 뵈었을 뿐인데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란 이사야는 그 거

룩함으로 인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으며, 따라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요점은 사역을 시작한 후 기록한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군대들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사 8:13)

이사야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악하고 세속적인 죄인인 우리는 모두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의 진노를 더욱 무서워해야 합니다! 과거 이사야처럼 지옥 불과 유향의 심판을 외쳤던 대언자들은 오늘날 희귀해졌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변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메시지도 변하지 않고 죄도 변하지 않으며 그 대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변하지 않으며 지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만 나약하게 전하며, 주관 없이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 싱거운 태도로 커튼 뒤에 숨어 속삭이듯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말만 듣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드시어 죄를 향해 부드러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오해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멀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 10:28)

이 말씀에 들어 있는 ‘멀한다’라는 단어를 보고 계십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이사야의 경고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는 심판을 경고하며 그리스도를 거절

하는 사악한 죄인들의 앞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겠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사 13:6-9)

‘잔혹’, ‘진노’, ‘분노’, ‘황폐하게 한다’, ‘멸한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시멜로¹처럼 한없이 흐물흐물하고 달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슬픈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성품에 결함이라도 되는 양 무시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본주의’ 설교자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정작 설교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면 그 진노가 우리를 떠날 것이라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많은 ‘근본주의’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형제들을 ‘보기 싫은 사람들’ 혹은 ‘사랑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이라 여기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분명히 보여 주는데도,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설교자는 과연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1. 젤라틴, 달걀 흰자, 설탕, 향료, 식용 색소 따위를 섞어 거품을 일으킨 다음 굳힌 양과자.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침묵이 금이올시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이 상하고 설교자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성경의 교리를 외면한다면, 그러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만 노란색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조품일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듯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성경적 설교자로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예 외면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향한 복수와 진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길 잃은 죄인들이 그분께 대항한다면, 그들은 즉시 자신을 하나님의 파멸시키시는 얼굴(Destructive Face)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라.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창 19:1, 12-13)

사악한 자들의 죄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점점 더 불어날 때, 주님의 얼굴은 파멸시키는 얼굴로 변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옛적 소돔에 살던 사악한 자들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서 나온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즙은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들 가운데 밀봉된 채 있지 아니한가?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니 그들의 밭이 정해진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

리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음료 헌물의 포도즙을 마신 자들 곧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며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니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내가 영원히 살므로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갚음하리라. (신 32:32-35, 37-41)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용어색인(Concordance)으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 동정심, 그리고 온유함보다는 진노, 격노, 분노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느도다. (시 7:11)

저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은사주의자인 오랄 로버츠 쇼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어린 아들 디키가 ‘설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키는 17분 동안 말했습니다. 17분 동안 그는 거의 매분 최소한 한 번씩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진노가 없다고 디키 로버츠는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상도 미워하실 수 없으며 미워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은 사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유행하는 오순절 은사 운동으로부터 비롯된 전형적이고 쓰레기 같은 주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본래 진노하는 성품을 지니지도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기도 하시며, 그분의 본성에는 진노하는 성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
뚫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 8:13)**

아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
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잠 6:16-19)**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에 비친 교만한 태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각을 품
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가령 하나님의 성품에는 증오나 진노가 없다고 말하
는 그러한 악한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데 빠른 발을 미
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며, 또한 형제 사이
를 갈라놓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당신은 디키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예레미야서 44장을 읽어 보셔
야 합니다.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
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
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이르기를, 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렘 44:4)**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

될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사 1:10, 13-14)

그러므로 주 군대들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든 거리에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를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 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암 5:16, 21)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대적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속 8:17)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 2:6)

설탕물에 푹 빠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여!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는 얼굴을 대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분이 선한 것을 사랑하시며 동시에 악한 것은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디키 로버츠가 섬기는 신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긍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며 그분의 신성을 완전하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성품에는 확실한 결점이 있는 셈입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은 도덕적 결함이며,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불구일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사악함과 의로움을 동시에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를 무시하거나 죄 짓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정결함과 사랑이 넘치는 존재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하고 악한 대상을 몹시 싫어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본성 때문에 천국과 마찬가지로 지옥도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롬 1:18)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내리고 그들을 낙원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서 여덟 명의 의로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를 완전히 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불의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실 때에도 다시 한번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증거는, 에덴동산에서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은 이래로 인류를 장악해 온 ‘사망의 통치’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모든 창조물이 헛된 것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 주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죄를 대적하시며 자신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복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고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예수님께 쏟으신 진노보다 더 큰 진노를 내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히 드러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도 장차 동일한 진노가 내려질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세상에 나타나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외쳤습니다(마 3:7).

사도 요한 역시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5-36)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오르는 불과 같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계 19:11-13, 15)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노와 진노를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히 10:31)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함은 시편 95편 11절을 통해 명백히 증명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시 95:11)

하나님께서 진노로 죄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 “내

가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창 22:16-1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 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 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 중 일부에게 진노하실 때 발견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신 1:34-35)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었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히 3:17-1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실로 그 복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믿음 없는 자들이 약속의 땅 곧 자신이 예비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시고는 참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시 태어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보리라 말씀하시면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진노를 선언하시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가 사람들 사이에 맺는 엄숙한 확정 약속임을 밝힙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89편 35절에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시편 95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거룩함으로 맹세하고 진노하여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노 역시 자신의 성품의 본질적 일면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맹세하시고 또 그와 같이 진노로 맹세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의 형태로 거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러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에 진노라는 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진노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진노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멸시키는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밧모 섬에서 본 사도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그는 그 파멸시키는 얼굴을 두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보았던 그 파멸시키는 얼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 선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계 6:12-17)

심판의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2)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을 원수들의 피에 적시기 위해 진노하며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파멸시키는 얼굴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공포 속에서 온몸은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위와 산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어린양의 얼굴과 그분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숨겨 달라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보았듯이 죄인들은 어린양의 파멸시키는 얼굴을 보고 공포에 차서 울부짖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이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파멸시키는 얼굴로부터 숨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수십 세기 전에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 130:3)

대언자 나훔은 강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의 티끌이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의 얼굴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그분의 격노 앞에 설 수 있으리오? 누가 그분의 맹렬한 분노가 운데 거할 수 있으리오? 그분의 격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에 의해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나 1:3, 5-6)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죄를 지닌 채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린양을 보게 될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으며, 그 끔찍한 진노를 견뎌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시 5:5)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 1:5-6)

자신의 종교나 인본주의 철학을 신봉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날 분명히 그 파멸시키는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보고 급기야 그 얼굴로부터 달아나 숨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숨겨 달라고 바위와 산들을 향해 울부짖을 것입니다.

어린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창조한 짐승

중 가장 순한 짐승입니다. 어린양은 매우 유순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어린양으로 표현하심으로 자신의 온화함, 부드러움, 유순함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의 본성 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우리의 혼을 구하기 위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거절할 때 그 사랑은 진노로 변하게 되며, 바로 그 진노는 하나님을 배척한 모든 죄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양의 사랑을 무시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며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까지 이러한 죄인들을 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을 다 파멸시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어린양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한 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며 계속해서 그분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공격이 아직 자신들에게 내려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 그러나 사악한 자의 일은 잘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겠고 그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전 8:11, 13)

하나님의 연자방아 맷돌은 악인들을 느리게, 그러나 잘게 갈아 버릴 터이기에 그들은 결코 잘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클수록, 자신의 선함을 손상시킨 결과로 임하는 그분의 진노는 더욱 크고 무서울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보다 고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가 극심하게 요동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선하심보다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가 불꽃처럼 폭발하

게 될 때, 그보다 더 끔찍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아이들아, 너희는 되돌아갈지어다, 하시나...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니 그들은 마치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가 주의 분노로 인해 소멸되었으며 주의 진노로 인해 근심하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시 90:3, 5, 7, 11)

따라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불타는 눈과 진노하는 얼굴로부터 자신들을 숨겨 달라고 바위와 산들에게 울부짖는 광경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으러 흰 왕좌 앞으로 나아가며 싸늘한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구출할 자가 없으리라. (시 50:22)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결국 당신은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한이 밧모 섬에서 환상 중에 두 번째로 본 바와 같이, 흰 왕좌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죄인들이 몸을 움츠리면서 그 파멸시키는 얼굴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계 20:11)

아, 얼마나 슬프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왕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파멸시키는 얼굴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며 무서워 떠는 죄인들에게는 숨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즉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들어올리면,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지옥의 연기 속에서 벌거벗은 채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결국 불 호수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꿰뚫는 그분의 불타는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그 무서운 얼굴 모습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펼쳐져 모든 죄가 전 우주에 공개되고, 그들은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져 거기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며,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 내리시리이다. (시 55:23)

파멸의 마지막 상태인 불 호수 속의 지옥으로 들어갈 때, 그 파멸시키는 얼굴의 주인공은 묵묵히 그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또 그들이 불 호수에서 고통을 받으며 불타 때에도 그 파멸시키는 얼굴은 그들을 쳐다볼 것입니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도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욥 26:6)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든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오?* (잠 15:11)

그 파멸시키는 얼굴은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거절한 그리스도의 얼굴, 즉 그 파멸시키는 얼굴에는 복수의 미소가 서릴 것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에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에 조롱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하리라.* (잠 1:24-27)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여! 만일 당신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들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셈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죄로부터 즉시 돌이켜 예수님을 모셔들이기 원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두 번씩이나 당신이 예수님께 무엇이든 말씀드려야 할지 보여 드렸습니다. 꼭 다음과 같이 말할 필요는 없고 그와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저(역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드립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파멸시키는 얼굴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에 그분은 당신이 불꽃 속에서 파멸되는 모습을 보며 웃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번쩍이며 빛나는 그 파멸시키는 얼굴을 바라볼 때 느끼는 공포는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The Delightful Face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 제14 장

환희의 얼굴

오늘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신다고 가정한다면, 그분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잠언 8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전 장에서 이미 이 사실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잠 8:30)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나간 영원(past eternity)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시듯, 아들 예수님의 기쁨이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땅의 거할 만한 곳을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하였느니라. (잠 8:31)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창조물,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즉 사악하고 악한 죄인들 때문에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길이 올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잠 11:20)

오늘날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써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나눌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빛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을 지킬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 장을 시작하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요한복음의 두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은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나타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

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당신은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마음의 장막을 걷어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큰 소망을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위해 자신이 곧 하늘로 되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히 1:13). 실제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 16:28)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며,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콤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는 소중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손자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에 저의 소망은 그들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서 가장 힘든 점은 오랫동안 그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주님께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로 만들어 주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을 특히 그리워합니다. 제 아내 조니와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큰 외로움은 주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늘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과

부모님 집은 약 50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촘촘한 일정 때문에 저는 일 년에 두 번, 3~4일 동안만 그분들을 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끔찍이 사랑하기에 저는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미국 전역에서 귀한 친구를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소유인 사람들에 대해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그분이 마음속으로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사실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 17:24)

여기서 당신은 다시 한번 구원자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자신이 소유한 백성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가장 크게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공포를 참아낼 힘을 얻으신 것도 바로 이 강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멀리하시며 십자가를 건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히 12:2)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 17:24)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이를 통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 뒤 그분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올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 하늘에 올 때 친히 그들을 환영하며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테반이 죽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고집 센 유대인들을 향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를 좋아하는 종교인들은 그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행 7:54-56; 59-60)

주님께서 하늘들을 여시고 스테반이 가야 할 곳을 볼 수 있게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서 계심을 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서 읽어 보았습니다(히 12:2).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테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왜 예수님께서서는 서 계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소망이 자신의 소유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둘씩 하늘의 집으로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십니다!

당신은 또한 스테반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고후 4:6).

그래서 스테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 17:24)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 17:5)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요 17:24)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대면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장차 확실히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이 이에 대해 무어라 말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계 21:1, 3; 22:3-4)

오, 복된 기쁨의 순간이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생각만 하면 벅찬 감동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상상하는 것조차 감당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야비한 로마 군인들의 주먹에 얻어맞아 피를 흘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저를 위해 피 흘리고 침으로 얼룩진 그 얼굴을 저는 볼 것입니다. 그분을 뵈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어서서 그분의 목을 껴안을 것입니다! 제 손으로 그분을 감싸 안은 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주님의 고귀한 피를 흘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형벌을 친히 감당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그곳에 서서 주 예수님을 수백 년 동안 껴안고 있을지...!

오! 할렐루야! 성경은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복된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가슴 벅차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깊은 전율을 느낄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 얼굴을 보며 기뻐하시어 저를 하늘로 들이시고,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 17:24)

복되신 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저를 보실 때, 저는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은 환희의 얼굴(Delightful Face)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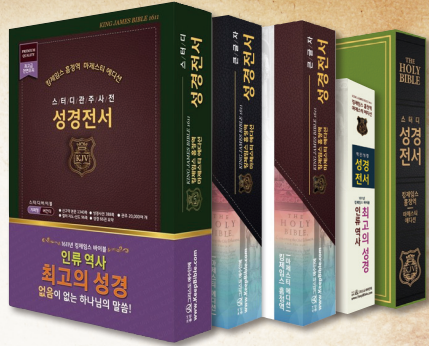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후 4:6)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리
얼굴과 얼굴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나 기쁨 가운데 그분을 보게 되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고귀한 분!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판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진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진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부와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설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앙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짚은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돔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설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상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리침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회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운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과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불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The Fac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주제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열네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분께 더욱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주님을 모르는 분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얼굴을 바라볼 때, 이러한 분도 제가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앨 레이시(Al Lacy)

- | | |
|---------------|-----------------------|
| 1. 역동적인 얼굴 | The Dynamic Face |
| 2. 무서운 얼굴 | The Dreadful Face |
| 3. 실망한 얼굴 | The Disappointed Face |
| 4. 눈부신 얼굴 | The Dazzling Face |
| 5. 신성의 얼굴 | The Deified Face |
| 6. 담대한 얼굴 | The Dauntless Face |
| 7. 의무에 충실한 얼굴 | The Dutiful Face |
| 8. 멸시당한 얼굴 | The Despised Face |
| 9. 상처 난 얼굴 | The Disfigured Face |
| 10. 고독한 얼굴 | The Desolate Face |
| 11. 하나님의 얼굴 | The Divine Face |
| 12. 변장한 얼굴 | The Disguised Face |
| 13. 파멸시키는 얼굴 | The Destructive Face |
| 14. 환희의 얼굴 | The Delightful Face |



KEEP BIBLE
무료 PDF 책



김재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 · 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성경공부

값 12,000원